

2015-06

기본연구

제주지역 창업기업 재정지원 방안 연구

고철수 · 김종서

Pending issue research

Basic research

Commissioned research

Policy research

Jeju Development Institute 제주발전연구원

기본연구 2015-06

제주지역 창업기업 재정지원 방안 연구

고철수 · 김종서

발 간 사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기업에 대한 지원제도의 통합, 지원대상 및 한도액의 확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도내 산업 특성을 반영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양적 지원체제를 질적 지원체제로 개선하며, 제주지역의 창업기업에 대한 실패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효과적인 재정 지원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는 것은 의미 있는 연구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재정지원방안을 지원금액, 지원방식, 지원대상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첫째, 재정지원금액은 사업성이 우수한 기업에게 보다 많은 금액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둘째, 재정지원방식은 융자금 대출에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있는 창업 초기 단계의 기업에 펀드 조성을 통한 직접 투자로 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셋째, 재정 지원대상은 재창업자에게 기회를 확대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창업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과제로는 재창업 지원, 펀드 조성을 통한 직접 투자, 기술사업화 지원, 사전컨설팅 지원, 해외투자/해외진출사업 지원, 멘토 시스템 사업 지원 등을 제시하고 있어 도 정책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가 정부의 창업활성화 정책에 부응하여 제주의 창업기업에 대하여 창업, 성장, 회수, 재투자/재도전으로 순환이 되는 창업 생태계 조성을 통하여 제주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를 바란다.

2015년 6월

제주발전연구원
원장 강 기 춘

연구요약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고용 없는 성장 시대의 도래에 따라 대기업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한계에 도달하였고, 높아가는 실업률, 특히 악화되고 있는 청년실업률 그리고 고령화 시대를 맞아 창업만이 유일한 대안이 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지원제도의 통합, 지원대상 및 한도액의 확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수요자 위주의 양적 지원체제로 인하여 해가 갈수록 중소기업 지원기금이 감소추세에 있어 지원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함
- 이에 따라 도내 산업 특성을 반영하고 양적 지원체제를 질적 지원체제로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제주지역의 창업기업에 대한 실패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효과적인 재정지원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정부의 창업 활성화 정책 달성에 부응하여 제주의 창업기업에 대하여 창업 → 성장 → 회수 → 재투자/재도전으로 순환이 되는 창업 생태계 조성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 실현이 요구됨

2. 제주지역의 창업기업 현황분석

- 2015년 5월 제주도 실업률은 2.2%로 전년동월대비 0.6%p 하락, 실업자는 7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천명 -17.8% 감소

- 성별로 보면 남자는 5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6.3% 감소,
여자는 2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4.9% 감소
- 제주지역 신설법인 증가율이 38.5%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음
 -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2014년 신설법인은 전년보다 12.1% 증가한 8만4,697개로 지난 2000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증가폭을 보이면서 최초로 8만개를 돌파했음
- 창업기업의 애로사항으로 가장 먼저 자금조달을 선택하였고, 그 다음으로 제품의 판로확보/신규거래처 영업, 그리고 제품개발과 경영관리 등으로 나타남

3. 제주지역의 재정지원 방안

- 창업기업들이 기술개발에도 불구하고 자금난으로 죽음의 계곡 (Death Valley)을 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이에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창업기업에 기존의 재정 지원 방안을 수정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지원금액, 지원방식, 지원 대상으로 나누어 제시하며 그 외 비재정 지원방안을 제시함

1) 재정지원금액

- 기존 다수기업에게 적은 금액을 지원하기보다는 창업사업자금 지원 기준을 달리하여 사업성이 우수한 기업에게 보다 많은 금액을 지원(소수기업에게 집중 재정 지원)하는 것이 더 효과적임

2) 재정지원방식

- 펀드 조성을 통해 성장 가능성은 있으나 자금 및 담보 능력 부족 등으로 융자금 대출에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있는 창업 초기 단계의 기업에 펀드조성을 통한 직접 투자로 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데 기여함

3) 재정지원대상

- 기존 창업자 외 그동안 소외되었던 재창업자에게 기회를 확대하여 창업자금을 지원함
- 재창업의 경우 기존에 축적된 경영, 기술, 유통망 등에 대한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어 신규 창업에 비해 성공 가능성이 큼

4) 비 재정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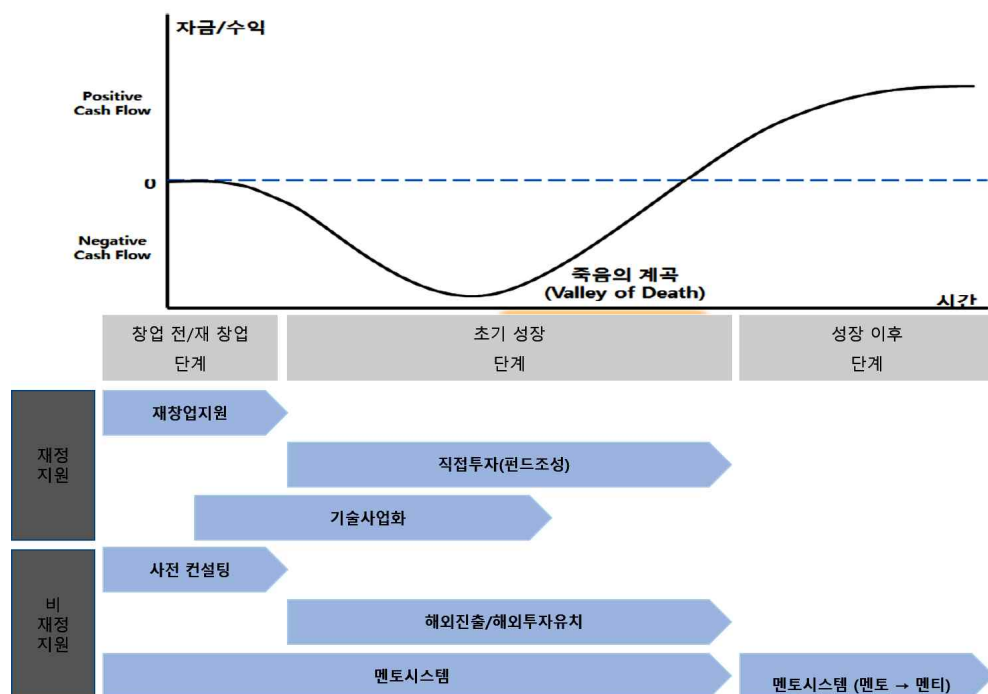
- 창업전 컨설팅 강화(생계형 창업) : 창업 전 자금을 요청한 예비 창업자에게 의무적인 컨설팅을 제공하여 단순판매 중심의 도·소매업 과당경쟁을 방지하고 지역산업과 연계되는 업종 유도
- 글로벌 투자 및 진출지원 확대 : 글로벌 투자 및 진출지원을 원하는 기업에게 기존사업과 연계 등을 통한 적극지원
- 멘토링 지원 시스템 강화 : 선도 벤처가 또는 전문가가 혁신성과 시장성 등이 우수한 청년 벤처기업 직접 양성을 지원

5) 정책 로드맵

- 성장단계에 따른 창업지원 로드맵은 창업기업의 성장 단계별 지원

사업으로 기존 창업지원사업에 추가로 진행되어야 할 사업으로 기술

- 창업전/재창업 단계에서는 재창업 지원 및 사전 컨설팅사업을, 초기성장단계에서는 직접투자(펀드 조성), 해외진출 및 투자유치 사업을, 성장이후단계에서는 멘토시스템 운영사업을 지원



목 차

I.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4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
II. 제주지역의 창업기업 현황분석	6
1. 창업의 개념	6
2. 실업률 현황	8
3. 제주도 창업기업의 현황	13
4. 창업기업의 애로사항	19
III. 창업기업의 선진사례 조사 및 시사점	21
1. 국내사례	21
2. 해외사례	27
3. 시사점	36
IV. 창업기업 재정지원 제도	37
1. 중앙정부의 창업기업 재정지원 제도	37
2. 제주의 창업기업 재정지원 제도	41
3. 창업지원사업의 문제점	44
V. 창업기업 재정지원 방안	47
1. 제주지역 창업기업 재정지원 방안	47
2. 제주지역 창업기업 재정지원 과제	49
3. 재정 외 지원 방안	54
4. 정책 로드맵	56
참고문헌	59

<표 차례>

<표 I-1>	세계은행 “Doing Business” 창업부문 순위	3
<표 II-1>	주요국 실업률 추이	9
<표 II-2>	제주도 실업자 및 실업률	11
<표 II-3>	2015년 1월 창업 - 성별 비중	13
<표 II-4>	2015년 1월 업종별 - 연령별 창업동향	14
<표 II-5>	2015년 1월 자본금별 창업동향	15
<표 II-6>	업종별 벤처투자 현황	17
<표 II-7>	연도별 신설법인 수	17
<표 II-8>	창업자 유형별 현황	18
<표 II-9>	창업자 연령별 현황	19
<표 II-10>	창업 중 겪는 애로사항	20
<표 III-1>	챌린지 1000 프로젝트 지원내용	22
<표 III-2>	민간기업의 창업지원활동	25
<표 III-3>	요즈마펀드 추진경과	31
<표 III-4>	Startup America Initiative 주요 시책	34
<표 IV-1>	2015년 창업지원 사업	37
<표 IV-2>	세부사업별 지원 계획	40
<표 IV-3>	부처별 창업지원 현황	45
<표 V-1>	OECD 주요국별 창업기업 생존율	47

[그림 차례]

[그림 I -1] 창조경제 생태계 개념도	1
[그림 II-1] 청년층(15~29살) 실업률 추이	11
[그림 II-2] 2015년 1월 창업 - 주요업종 비중	14
[그림 V-1] 성장단계에 따른 창업지원 로드맵	56

I.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연구의 배경

- 고용 없는 성장시대의 도래에 따라 대기업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한계에 도달하였고, 높아가는 실업률, 특히 악화되고 있는 청년 실업률 그리고 고령화 시대를 맞아 창업만이 유일한 대안이 되고 있음
- 이명박 정부에서는 2009년 9개 부처 공동으로 “기술창업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 이래 다양한 창업지원 정책을 추진하였음
- 2008~2010년 사이 추진하였던 창업지원 정책을 보면 성장단계에 있는 창업기업을 지원하기보다는 창업기업 수의 확장에 집중하여 창업예비 및 초기기업의 제품 및 비즈니스모델 개발을 위한 자금지원이 많이 이루어졌으며, 주요 창업지원 사업으로 “아이디어 상업화”, “예비기술 창업자 육성사업”, “2030 청년창업 프로젝트” 등이 있음
-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라는 국정 비전을 제시하고, 5가지 국정 목표 중 한가지인 ‘일자리 중심 창조경제’를 설정하고, 미래창조부를 설치하는 등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자료: 관계부처 합동, 창조경제 실현계획(안)(2013)

[그림 I -1] 창조경제 생태계 개념도

- 창조경제의 핵심은 더 많은 젊은이들이 더 많은 기술창업 즉 벤처를 일구는 것에 맞추어져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도전정신으로 무장한 창업 벤처들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고 이를 토대로 새로운 일자리와 신성장동력을 창출하는 전략이라 할 수 있음
- 박근혜정부는 창업·벤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내놓고 있으며, 이의 기본 골자는 ‘창업-성장-회수-재도전’이 원활한 선순환 창업·벤처생태계를 조성하여 창조적 인재들이 도전하여 성공하는 영웅 신화를 창출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 정부는 창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창업정책 및 민간지원제도 등 창업 인프라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어 창업활성화 기반을 공고히 하고 있으며 여기에 정부와 지자체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창업인프라를 확충하고 있음
- 대학은 창업경영 등 정규과목 개설과 창업휴학제와 같은 창업 친화적 제도를 도입하며 대학생의 졸업 후 취업 외 창업의 길도 모색할 수 있도록 투 트랙을 유지하며, 민간기업은 자발적으로 창업기업 멘토링, 노하우 전수, 창업펀드 조성 등 초기 창업자 지원을 위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음
- 이 같은 정부 및 민간의 창업 인프라 조성 노력으로 창업환경은 매우 개선되어 <표 I -1>과 같이 세계은행 기업환경 평가 중 창업부문 총괄 순위는 2008년 126위에서 2014년 17위로 급상승하였으나, 여전히 창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요식업 중심의 생계형 창업 비중이 높아 기회추구형 창업 활성화는 미흡한 실정이며 창업지원제도가 형식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창업기업에 실질적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음

<표 I -1> 세계은행 “Doing Business” 창업부문 순위

구분(발표연도)	'08	'10	'12	'14
창업부문 순위	126위	60위	24위	17위
창업단계(개)	10(119)	8(99)	5(34)	3
창업 소요시간(일)	17(60)	14(65)	7(26)	4
GNI대비 창업비용(%)	16.9(91)	14.7(92)	14.6(103)	14.6
GNI대비 최저자본금(%)	53.8(114)	0.0(1)	0.0(1)	0.0

자료: 세계은행(2015), 기업환경평가 中 창업부문

-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창의력과 열정을 보유한 청년들의 창업 확산도 중요하지만 청년 CEO 비중은 2000년대 초반 32.4%에서 2014년 11.6%로 하락하고 있으며 생계형 창업 비중이 높은 50~60대의 창업 증가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우리나라는 현재 혁신주도형 경제로 분류되고 있으나 기회형 창업 비중이 생계형 창업의 0.9배에 그쳐 노르웨이 16.4배, 스웨덴 11.1배, 미국 2.8배, 일본 2.6배 대비 낮은 수준이며, 이는 청년들이 사업기회를 포착해도 실패우려로 창업을 주저하는 경우가 많으며,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려 해도 언어, 노하우, 자금 등에서 어려움이 존재하고, 창업 교육, 멘토링 등 창업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인프라가 부족한 것이 원인으로 제기되고 있음
- 또한 각 기관별, 지자체별 실적 올리기에만 급급하여 중복되는 사업이 많고 실제 창업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크지가 않은 실정임

2.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통합, 지원대상 및 한도액의 확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수요자 위주의 양적 지원체제로 인하여 해가 갈수록 중소기업 지원 기금이 감소추세에 있어 지원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함
- 이에 따라 도내 산업 특성을 반영하고 양적지원체제를 질적지원체제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제주지역의 창업기업에 대한 실패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효과적인 재정 지원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정부의 창업활성화 정책 달성에 부응하여 제주의 창업기업에 대하여 창업 → 성장 → 회수 → 재투자/재도전으로 순환이 되는 창업 생태계 조성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창업지원기관, 자치단체들의 실적 올리기식의 무분별한 창업 지원에 따른 자금 미회수 및 창업기업들의 폐업 속출을 방지하고 효과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함
- 제주 창업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정책을 발굴하고 그에 따른 맞춤형 재정지원 방안 강구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 본 연구에서 분석하는 창업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으로 정의함

- 본 연구는 제주도를 중심으로 창업기업의 실태 분석과 함께 창업기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사례분석을 통해 향후 창업 성공을 위한 효과적인 지원 방안 마련에 목적을 두고 있어 제주지역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조사 분석함

2) 연구의 방법

- 기존의 관련 연구들을 토대로 창업 관련 기존연구 및 관련 제도를 검토함
- 본 연구에서는 창업기업의 실태, 특히 창업 기업가의 특성, 창업활동 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창업환경, 창업활동의 애로요인 등을 파악하기 위해 국내외 사례조사를 검토함
- 제주특별자치도의 창업기업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제주의 창업 관련 문제점을 파악함
- 본 연구를 위해 창업기업 관련 전문가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기업 관련 담당자 인터뷰를 통해 기업정책을 파악함
- 국내 타 지방 벤치마킹 및 선진 사례조사 등을 통해 창업 관련 정책들을 고찰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창업 관련 시사점을 도출함

Ⅱ. 제주지역의 창업기업 현황분석

1. 창업의 개념

1) 창업의 정의

- 창업이란 말 그대로 기업을 새로이 창조하는 일이며 학문적으로 보면 인적·물적 자원을 적절히 결합하여 미리 설정된 기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조달, 생산, 판매하거나 그와 부수된 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보다 실무적으로 보면 개인 또는 집단이 자신의 책임하에 돈과 사람을 동원하여 새로이 사업을 개시하는 것이 곧 창업
- 즉 창업의 최종목적은 사업이윤의 극대화에 있음. 다시 말해 창업이란 이윤창출을 위한 사업의 기초를 세우는 것으로 사업가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개인 또는 집단이 사업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업목표를 세워 적절한 사업기회에 자본, 인력, 설비, 원자재 등 경영자원을 확보하여 재화의 생산 또는 용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을 설립하는 것임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의 창업

- 창업의 정의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의 창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함
- 창업자
 - 창업자란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함

- 창업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사업계획 승인제도에 따른 공장설립 인·허가 일괄처리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음

3) 청년창업

- 새 정부는 창업 중 청년 창업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음. 청년실업률이 급속하게 증가하여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청년창업을 활성화 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우수한 청년창업가 발굴 양성’이나 ‘원활한 재도전 환경 조성’을 추진과제로 명시하여 청년 일자리 개선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음
- 청년기는 새롭게 인생을 시작하는 시기로 경제적인 측면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대를 규정하는 것도 경제활동을 시작한다는 개념으로 접근할 수 있으며 OECD에서의 청년층은 근로가 허용되는 연령대인 15세에서 일반적으로 대학 졸업 후 처음 입직하는 연령대를 포함하는 24세까지 10년간으로 보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군입대 후 전역하여 경제활동을 시작하면 24세를 넘기는 경우가 많아, 일반적으로 29세까지 15년간을 청년층 노동시장으로 보고 있음
- 그러나 창업은 취업이나 구직활동과 달리 각종 자원을 동원하고 상당한 경험과 판단을 요구하기 때문에 해당 연령층을 보다 폭넓게 볼 필요가 있으며 “청년창업전용자금”지원제도에서는 청년을 공고일 기준으로 39세 미만이어야 한다는 연령제한을 두고 있으며, 정부 및 지자체의 대부분의 창업지원제도에서도 특정 기준일을 기점으로 40세 미만 대상자를 청년창업자로 정의함
- 이처럼 창업을 처음 경험하게 되는 연령대를 30대까지로 보는 등 창업 측면에서 청년기는 15세에서 39세까지로 여겨져 즉, 경제활동 참여가 가능한 연령대(15세)에 도달한 후 상당한 직업경험을 축적할 수 있는 25년간을 청년창업의 시기로 보고 있음

- 또한 창업이란 다른 기업의 인수나 합병에 의하여 경영권을 얻은 것이 아니라, 1인 혹은 여럿이 새로운 사업체를 개설하는 것을 말하므로 청년창업은 39세 이전에 개별 혹은 공동으로 신규 업체를 개설하여 운영하는 경제활동으로 정의됨

4) 창업의 효과

- 창업의 공익적 효과는 다음과 같음
 - 자유경쟁 시장기능의 활성화에 기여
 - 기업의 존속 및 발전에 따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
 - 국민경제의 성장 및 발전에 기여
 - 국가산업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
 - 일자리 창출에 기여
 - 활발한 시장진입과 퇴출을 통해 기업 간 기술 및 품질 경쟁을 유발하고 산업의 신진대사를 촉진
- 창업의 개인적 효과는 다음과 같음
 - 자신의 능력과 의지를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획득
 - 직장생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주관적인 행동이 가능
 - 기업의 존속에 따른 지속적인 보장
 - 개인의 노력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가능
 - 자아실현 및 성취욕구

2. 실업률 현황

1) 국내 실업률

- 국내경제가 성장은 지속하면서 일자리 창출 여력이 갈수록 떨어지는 '고용없는 성장'이 고착화 되고 있음. 기업의 채용유인이 줄고, 가계의 취업기대도 줄어 고용시장이 점점 불안정해지고 있음

- 이를 반영한 것이 체감 실업률인데 실업률의 고용보조지표로서 실업률은 3%대이지만 발표된 체감실업률은 11%대를 넘어서고 있음
- 2014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포함해 주요 선진국들의 실업률은 떨어진 반면 한국은 오른 것으로 나타나며 특히 실업률 상승률은 34개국 중 우리나라가 4위를 차지해 고용 없는 성장 현상이 뚜렷이 나타남
- 미국의 금리인하, 유럽 양적완화 정책 등으로 선진국 경기는 회복세를 보이며 고용개선 조짐으로 이어지는 것과 달리 한국은 경기 침체 속에 실업률 또한 증가하고 있음
- 최근 OECD가 발표한 34개국 실업률을 보면 OECD 회원국들의 경우 2013년 7.9%에서 2014년 7.3%, 주요 7개국(G7)은 같은 기간 7.1%에서 6.4%로 각각 0.6%포인트, 0.7%포인트 하락했으나 한국은 실업률이 3.1%에서 3.5%로 0.4%포인트 증가함
- 실업률 증가폭으로는 칠레(5.9%→6.4%), 핀란드(8.2%→8.7%), 이탈리아(12.2%→12.7%)에 이어 한국이 4번째로 높음

<표 II-1> 주요국 실업률 추이

(단위:%)

구분	2013년	2014년
OECD 34개국	7.9	7.3
G7	7.1	6.4
유럽연합(EU)	10.9	10.2
캐나다	7.1	6.9
프랑스	10.3	10.2
독일	5.2	5.0
영국	7.6	-

구분	2013년	2014년
미국	7.4	6.2
일본	4.0	3.6
이탈리아	12.2	12.7
한국	3.1	3.5

자료: OECD Social Indicators (2015)

- 국제통화기금(IMF)이 밝힌 2014년 세계경제 성장률은 3.3%로 한국의 경제성장률과 같음. 주요 선진국의 평균 성장률 1.8%보다는 월등히 높은 수치로 한국경제가 성장은 지속하면서도 일자리 창출 여력은 갈수록 떨어지는, '고용 없는 성장'이 고착화되고 있다는 의미임
- 이는 소비와 투자 등 내수 부진이 계속되면서 일자리가 부족해 취업으로 이어지지 않아 실업률이 상승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금리인하나 양적완화 정책 등에 힘입어 소비와 투자가 늘어 고용이 개선되는 경제 선순환 구조를 보이는 주요 선진국들과는 상황이 다름
- 현재 기업들이 영업 실적 감소를 이유로 신규 채용을 줄인데다 비정규직이나 임시직 같은 질 낮은 일자리가 많아 취업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음

2) 제주 실업률

- 2015년 5월 제주도 실업률은 2.2%로 전년동월대비 0.6%p 하락. 실업자는 7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천명 17.8% 감소
- 성별로 보면 남자는 5천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6.3% 감소, 여자는 2천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34.9% 감소
- 전국대비로 실업률을 비교하면 약 2% 낮은 수치로 타 시도에 비해 경제활동인구에서 취업자수가 많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음

<표 II-2> 제주도 실업자 및 실업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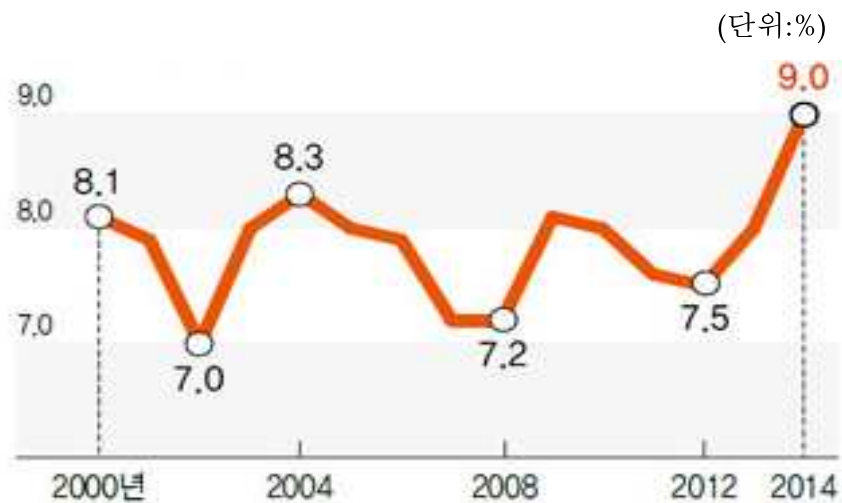
(단위: 천명, %, %p)

		'13. 12월	'14. 7월	'14. 8월	'14. 9월	'14. 10월	'14. 11월	'14. 12월
제주	실업자	6	7	6	5	5	5	5
	전년동월증감	4	-1	0	-1	1	0	-1
	실업률	1.9	2.2	1.7	1.4	1.6	1.6	1.5
	전년동월증감	1.1	-0.4	0.0	-0.4	0.3	0.0	-0.4

자료: 호남지방통계청(2015), 제주지역고용동향

3) 청년실업률

- 2014년 청년층 실업률이 9%로, 통계기준을 변경한 1999년 이후 가장 높게 나타났음. 처음으로 일자리를 구하는 데 성공한 청년취업자 5명 중 1명은 1년 이하의 계약직으로 직장생활을 시작하는 것으로 조사됐음. 이는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기도 어렵고, 어렵게 취직을 해도 상당수가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실정임



자료: 통계청, 사회통계조사보고서(2015)

[그림 II-1] 청년층(15~29살) 실업률 추이

- 지난 2015년 1월 14일 통계청이 발표한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해 15~29살 청년층 실업률은 9%로, 통계기준을 변경한(실업자 구직기간 1주→4주) 1999년 이후 가장 높았음. 외환위기 여파가 남아 있던 1999년 청년실업률은 10.9%(옛 기준), 새 기준으로 처음 작성된 2000년 수치는 8.1%였음
- 지난해 청년실업률은 ‘신용카드 대란’에 휘말렸던 2004년(8.3%)이나 세계 금융위기로 경기가 급속도로 위축됐던 2009년(8.1%)보다 높음. 청년실업자 수는 2012년 31만3,000명(7.5%)에서 2013년 33만1,000명(8%), 지난해 38만5,000명(9%)으로 치솟고 있는 실정임
- 졸업예정자와 취업재수생을 합쳐 약 95만 명이 취업시장에 쏟아지는데, 이들 중 10대 대기업에 뽑힐 사람이 2만 명 정도에 불과한 현실임. 얼마 전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대졸 신입 직원이 대기업의 임원이 되려면 평균 23.7년이 소요되는 데 신입사원 1,000명 중 고작 7명만이 임원으로 승진함
- 승진에서 탈락하고 옷 벗는 회사원이 할 일은 새로운 일자리를 알아보거나 아니면 창업을 하는 것이 현실임. 나이 먹고 쉽게 일자리를 찾기는 어렵고 많은 사람이 창업에 눈을 돌리게 되는데, 문제는 창업 뒤 3년 안에 문을 닫는 자영업자가 47%에 이른다는 사실임. 취업하기도 어렵고 그나마 취업을 해도 안정적으로 직장에 다니기도 어려운 오늘의 현실임

3. 제주도 창업기업의 현황

1) 국내 창업 현황

- 2015. 1월 신설법인은 전년 동월대비 1,140개(16.5%) 증가한 8,070개로 '14. 1월 6,930개, '14. 12월 7,889개 '15. 1월 8,070개의 증가세를 보임
- 성별 동향을 보면 전년동월대비 여성은 18.9%, 남성은 15.7% 증가하였으며,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0.5%p 증가하였음

<표 II-3> 2015년 1월 창업 - 성별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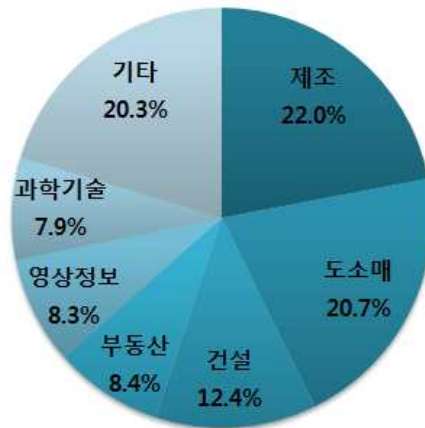
(단위: 개, %)

구 분	2014년			2015년 1월	전년동월 증감률	전월대비 증감률
		1월	12			
여 성	19,726 (23.3)	1,600 (23.1)	1,752 (22.2)	1,903 (23.6)	18.9	8.6
남 성	64,971 (76.7)	5,330 (76.9)	6,137 (77.8)	6,167 (76.4)	15.7	0.5
계	84,697 (100.0)	6,930 (100.0)	7,889 (100.0)	8,070 (100.0)	16.5	2.3

자료: 중소기업청(2015.2), 2015년 1월 신설법인 동향

- 업종별 동향을 보면 총 8,070개로 제조업 1,774개(22.0%), 도소매업 1,667개(20.7%), 건설업 1,004개(12.4%), 부동산임대업 674개(8.4%) 등의 순으로 설립되었음
- 증감규모를 보면 도소매업 286개, 부동산임대업 225개, 건설업 181개 등이 증가하였고, 전기·가스·수도업 10개 등이 감소하였음
- 증감률을 보면 농·임·어업 73.1%, 부동산임대업 50.1%, 숙박음식업 37.6% 순으로 증가하였으며, 전기·가스·수도업 9.9% 감소하였음

(단위: %)



자료: 중소기업청(2015.2), 2015년 1월 신설법인 동향

[그림 II-2] 2015년 1월 창업 - 주요업종 비중

- 연령별, 업종별 동향을 보면 연령별 신설법인은 40대가 3,160개, 50대가 2,030개를 설립하였음

<표 II-4> 2015년 1월 업종별 - 연령별 창업동향

(단위: 개, %)

구 분	30세 미만	30대	40대	50대	60세 이상
합 계	392(4.9)	1,776(22.0)	3,160(39.2)	2,030(25.2)	709(8.8)
제조업	92(23.5)	321(18.1)	726(23.0)	490(24.1)	68(9.6)
건설업	25(6.4)	162(9.1)	409(12.9)	316(15.6)	92(13.0)
도소매업	131(33.4)	440(24.8)	607(19.2)	361(17.8)	128(18.1)
영상정보서비스업	47(12.0)	201(11.3)	227(8.8)	112(5.5)	32(4.5)
부동산임대업	14(3.6)	113(6.4)	265(8.4)	206(10.1)	76(10.7)
과학기술서비스업	20(5.1)	172(9.7)	278(8.8)	119(5.9)	46(6.5)

자료: 중소기업청(2015.2), 2015년 1월 신설법인 동향

* ()는 각 연령대에서 업종이 차지하는 비중

- 30세 미만인 경우, 392개(4.9%)를 설립하였으며, 제조업 92개(23.5%), 도소매업 131개(33.4%), 영상정보서비스업 47개(12.0%) 등이 증가 주도
 - 30대인 경우, 1,776개(22.0%)를 설립하였으며, 도소매업 440개(24.8%), 제조업 321개(18.1%), 영상정보서비스업 201개(11.3%) 등 위주로 증가 주도
 - 40대인 경우, 3,160개(39.2%)를 설립하였으며, 제조업 726개(23.0%), 도소매업 607개(19.2%), 건설업 409개(12.9%) 등 위주로 증가 주도
 - 50대인 경우, 2,030개(25.2%)를 설립하였으며, 제조업 490개(24.1%), 도소매업 361개(17.8%), 건설업 316개(15.6%) 등 위주로 증가 주도
 - 60세 이상인 경우, 709개(8.8%)를 설립하였으며, 도소매업 128개(18.1%), 건설업 92개(13.0%), 부동산임대업 76개(10.7%) 등이 증가 주도
- 자본금별 동향을 보면 전년동월대비 자본금 5천만원 이하가 889개(18.1%)를 설립하였으며, 1억원 ~ 5억원 미만이 126개(13.3%)를 설립하였음
- 전년 동월 대비 5천만원 이하가 전체의 71.8%를 차지하고 있으며, 5천만원 이상 ~ 1억원 이하가 13.3%를 차지하고 있음

<표 II-5> 2015년 1월 자본금별 창업동향

(단위 : 개,%)

구 분	2014년			2015년 1월	전년동월 증감률	전월대비 증감률
		1월	12월			
5천만원 이하	61,853 (73.0)	4,908 (70.8)	5,862 (74.3)	5,797 (71.8)	18.1	△1.1
1억원 이하	11,866 (14.0)	950 (13.7)	1,034 (13.1)	1,070 (13.3)	12.6	3.5
5억원 이하	9,694 (11.4)	950 (13.7)	819 (10.4)	1,076 (13.3)	13.3	31.4
10억원 이하	784 (0.9)	79 (1.1)	83 (1.1)	97 (1.2)	22.8	16.9
50억원 이하	398 (0.5)	32 (0.5)	73 (0.9)	21 (0.3)	△34.4	△71.2

구 분	2014년		2015년 1월	전년동월 증감률	전월대비 증감률	
	1월	12월				
50억원 초과	102 (0.1)	11 (0.2)	18 (0.2)	9 (0.1)	△18.2	△50.0
계	84,697 (100.0)	6,930 (100.0)	7,889 (100.0)	8,070 (100.0)	16.5	2.3

자료: 중소기업청(2015.2), 2015년 1월 신설법인 동향

2) 국내 벤처 현황¹⁾

- 벤처·창업 생태계 선순환 대책('13. 5월), 경제혁신 3개년 계획('14. 2월) 등을 통해 벤처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혁신적인 생태계 조성이 가시화 되는 상황
- 벤처기업 수는 2015년 1월 13일 기준으로 3만개(30,021개)를 초과하는 등 벤처기업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0년 24,645개에서 2015년 1월 13일자로 30,021개로 집계됐음
- 창업동아리 수도 전년대비 60% 이상 증가하는 등 대학가의 창업열기도 활발하며, 2013년 1,833개에서 2014년 2,949개(전년대비 60.9% ↑)로 증가했음
- 한국형 요즈마펀드, 청년창업펀드, 성장사다리펀드 등 정부의 벤처펀드 조성 확대에 부응한 민간 벤처투자도 확대됐음. 작년 신규 벤처펀드 조성은 2조 5,382억원으로 전년대비 62% 증가했음. 2014년 투자금액도 1조 6,393억원으로 전년대비 18.4% 증가했음
- 투자 분야도 기존 강세였던 정보통신, 제조업 분야에 더해 문화 콘텐츠, 생명공학 분야 등에 대한 투자가 크게 확대됐음

1) 기획재정부(2015.2), 벤처, 창업 활성화 동향과 성공사례

업종별 벤처투자 추이를 보면 문화콘텐츠분야가 '13년 20.6%에서 '14년 27.3%로 증가하였으며, 생명공학 분야는 '13년 10.6%에서 '14년 17.9%로 증가하였음

<표 II-6> 업종별 벤처투자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정보통신	제조업	생명공학	문화콘텐츠	서비스	기타	합계
'13	금액	4,878	3,118	1,463	2,856	1,093	437	13,845
	(비중)	(35.2)	(22.5)	(10.6)	(20.6)	(7.9)	(3.2)	(100)
'14	금액	4,319	2,334	2,931	4,481	2,043	284	16,393
	(비중)	(26.4)	(14.2)	(17.9)	(27.3)	(12.5)	(1.7)	(100)

자료: 기획재정부(2015.2), 벤처, 창업 활성화 동향과 성공사례

3) 제주도 창업 현황

- 제주도의 경우 2014년에 신설법인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2012년에는 전년대비 19.7% 증가, 2013년에는 3.3% 증가하였으나 2014년에는 38.5%가 증가하였음

<표 II-7> 연도별 신설법인 수

(단위: 개)

구분	2014	2013	2012	2011	2010	2009	2008
전국	84,697	75,574	74,162	65,110	60,312	56,830	41,728
서울	27,537	24,747	24,668	22,486	21,480	20,401	14,859
부산	4,613	4,222	4,100	3,601	3,302	3,353	2,576
대구	2,836	2,690	2,632	2,164	1,966	1,899	1,382
인천	3,715	3,460	3,314	2,674	2,274	2,199	1,628
광주	2,864	2,556	2,089	2,058	1,749	1,728	1,236

구분	2014	2013	2012	2011	2010	2009	2008
대전	1,980	1,880	1,876	1,667	1,494	1,474	972
울산	1,179	1,119	1,204	1,012	729	736	659
경기	19,341	17,015	16,492	13,942	12,592	11,277	8,312
수원	1,252	1,157	1,153	956	968	871	674
강원	1,374	1,153	1,189	1,101	1,091	1,063	655
충북	2,015	1,776	1,888	1,598	1,541	1,533	1,059
충남	2,662	2,427	2,436	2,172	2,129	1,749	1,445
세종	344	302	104	0	0	0	0
전북	2,449	2,088	2,093	1,888	1,729	1,688	1,204
전남	2,585	2,073	2,069	1,941	1,656	1,846	1,269
경북	3,014	2,664	2,662	2,278	2,342	2,024	1,454
경남	3,697	3,350	3,327	2,849	2,723	2,540	2,019
제주	1,240	895	866	723	547	449	325

자료: 통계청, 사회통계조사보고서(2015)

-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제주지역 신설법인 증가율이 38.5%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 2014년 신설법인은 전년보다 12.1% 증가한 8만4,697개로 지난 2000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증가폭을 보이면서 최초로 8만개를 돌파했음
- 특히 제주도는 1,240개가 신설돼 전년도 895개보다 38.5% 증가하면서 24.7% 증가한 전남을 크게 따돌리고 1위를 차지했음

<표 II-8> 창업자 유형별 현황

(단위: 명)

구분	소매업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일반현황	2,560	2,148	1,944
남성신규	1,023	1,242	1,007
여성신규	1,537	906	937

자료: 통계청, 국세통계연보 재편집(2014)

- 2014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소매업으로 2,560개 간판이 새로 달렸고, 서비스업 창업을 한 사람도 2,148명으로 집계됐음. 부동산임대업이 1,944명으로 지난해 제주도의 부동산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음
- 여성 신규 사업자는 서비스업(906명), 소매업(1,537명) 등이며 부동산 임대업(937명)이 큰 폭으로 증가했음. 반면 남성 신규 사업자는 서비스업(1,242명) 선호가 뚜렷했고, 소매업(1,023명)과 부동산임대업(1,007명)이 뒤를 이었음

<표 II-9> 창업자 연령별 현황

(단위: 명)

구 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일반현황	1,038	3,854	4,674	3,186	250

자료: 통계청, 국세통계연보 재편집(2014)

- 연령별로는 40대가 4,674명으로 가장 많았고, △30대 3,854명 △50대 3,186명 순으로 파악됐으며, 20대 사장이 1,038명, 60대 이상 사장도 250명이나 새로 사업 등록을 했음

4. 창업기업의 애로사항

- IBK컨설팅센터에서 실시한 2013년 30개 창업기업에 대한 인터뷰 내용을 참고하여 재편집하였음
- 창업자 인터뷰 중 ‘창업을 하며 가장 큰 애로사항’을 공통적으로 질문 해서 나온 응답 중 가장 빈도수가 많은 항목 상위 3개를 정리하여 순서대로 나열함

<표 II-10> 창업 중 겪는 애로사항

구분	자금조달	판로확보	제품개발	인력관리	각종규제	기타	합계
애로사항	61.3%	22.5%	7.0%	3.1%	1.4%	2.2%	100%

자료: IBK컨설팅센터(2013)

1) 자금조달

- 인터뷰 기업의 약 60% 이상이 자금부족을 가장 큰 애로사항이라 응답함. 초기 창업자금은 초도물품 구매 및 인건비 등으로 이미 소진 하였으며 부동산 등의 담보가 없어 추가 자금조달을 하기가 쉽지 않은 상태임

2) 판로확보

- 인터뷰 기업의 약 20% 이상이 판로확보 또는 신규 거래처 영업 등의 제품 판매처의 미확보를 애로사항으로 응답함. 창업자 나이가 어릴 수록 판로확보가 어렵다고 답하는 창업자가 많음. 이는 아이디어 또는 기술 하나만으로 창업하였으나 마케팅 또는 비즈니스 네트워크 부족으로 제품의 판로를 못 찾아 힘들어 하는 경우임

3) 제품개발

- 인터뷰 기업의 약 7% 이상이 제품개발의 어려움, 즉 기술사업화를 애로사항으로 응답함. 기술개발이 창업자 1명 또는 사원 포함 2~3명으로 계획대로 제품개발이 쉽지 않으며 결국 기술력의 부족이 일반적인 현상임

4) 기타

- 기타 응답으로 인력관리, 세무문제, 까다로운 정부제도 활용, 낮은 수익률, 각종 규제, 집안의 반대 등의 다양한 애로사항 등을 응답함

Ⅲ. 창업기업의 선진사례 조사 및 시사점

1. 국내사례2)

1) 청년창업드림리그

- 주최 : 경기도
- 목적 : 창업자들이 성공창업을 체험하고 창업 노하우를 배울 수 있는 창업자를 위한 학습의 장으로 운영하며, 경기도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한 구심점 역할로서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축제의 장으로의 운영을 목적으로 함
- 주요내용
 - 창업경진대회 : 기술/지식창업 분야에서 우수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 등을 대상으로 경진대회 개최
 - 창업페스티벌 : 창업토크쇼, 창업·성공특강, 엔젤마트, 창업우수사례 발표, 경기-DKU K-벤처포럼 개최, 전시관 운영 등
- 효과
 - 2014년 시행된 경기도 자체 기획 행사로서 창업토크쇼 등을 통하여 창업기업과 지자체간의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는 평이며, 특히 “재도전 컨퍼런스”의 경우 실패한 기업인이 창업에 대한 부담과 두려움을 해소하고 과거의 실패 경험자산을 기반으로 새로이 도전할 수 있는 ‘재기와 재도전’ 기회 제공을 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이 기존 행사와의 차별성임

2) G-창업프로젝트

- 주최 : 경기도
- 목적 : 참신한 아이디어와 신기술을 보유한 예비창업자 및 신규창업

2) 기획재정부, 벤처·창업 활성화 동향과 성공사례, 2015. 2.

자를 발굴·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사업 운영

○ 주요내용

- 공동창업실 제공 : 예비창업자에게 협약기간동안 사무공간 및 사무집기 무상제공
- 아이템개발비 : 금형, 목형, 샘플제작에 필요한 상품개발 외주용역비, 시제품 제작용 재료구입비 등
- 지식재산권 출원비 : 지식재산권 출원비 지원
- 창업교육 : 세무-재무회계, 마케팅 등 창업교육
- 특별보증우대 : 기술보증기금 및 경기신용보증재단 보증 추천

○ 효과

- 경기도 내 예비 창업자 및 신규창업자를 위한 총괄 지원 프로그램으로 교육에서 자금지원, 홍보 마케팅까지 전체적인 사업 분야를 커버하고 있음

3) 챌린지 1000프로젝트(舊, 청년창업1000프로젝트)

○ 주최 : 서울시

- 목적 : 만 6년이 지난 서울시의 대표적인 창업지원프로그램으로 창의적인 아이템을 보유한 20세~39세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 및 사무공간, 창업활동 지원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

○ 주요내용

<표 III-1> 챌린지 1000 프로젝트 지원내용

구분		3개월 창업성장	12개월 입주지원
해당팀		500팀	200팀
공간지원	규모	최대 3좌석	기업별 단독실 지원
	기간	3개월	12개월
재정지원	활동지원금	기업별 3,000천원	합격 후, 7,000천원 추가지원

○ 효과

- 서울시 청년기업의 기업 당 고용인원은 사업실행 1년차 2.4명에서 실행 3년차 8.1명으로 약 3.4배 증가했으며, 매출액도 1년차 3,700만원에서 3년차 5억7,500만원으로 약 15.5배 증가했음
- 서울시의 지원을 받은 청년창업가들은 2013년 4월 현재 사업자 등록 기준 1,850개의 사업체를 운영 중이며, 그 결과 5,056개의 청년일자리가 창출됐음
- 물론 무조건적인 지원만 하지는 않으며 엄격한 자체 평가시스템을 통해 무분별한 창업을 막고 실제 사업을 하지 않는 사람을 걸러내고 자체 평가시스템을 통해 입주기업을 꾸준히 관리하며 그 결과 3기생 1,000명 가운데 680명만이 정상 졸업했음
- 이런 철저한 관리는 졸업생들의 향후 사업 영속성으로 나타나 보통 전국 2, 3년차 생존율이 각각 56.5%, 46.4%인데 비해 SBA(서울산업진흥원) 2년차와 3년차의 생존율은 88.0%, 78.1%이며, 3년차 평균 창업 생존율이 전국평균의 2배에 육박하며 그 이상의 생존율 격차는 더 벌어질 것으로 예상됨

4) 엔젤마트

○ 주최 : 경기도

- 목적 : 기술은 우수하나 자금이 부족한 창업기업과 투자자와의 매칭을 통하여 자금 유치 및 조달 지원

○ 주요내용

- V엔젤투자자, 벤처캐피탈 및 개인·기관투자자로부터 투자유치 상담
- 경기테크노파크 기술투자유치 컨설팅 지원(가점 부여)

5) 아스피린 창업센터

- 주최 : 서울
- 목적 : 문제와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창업인, 창업 아이템을 발굴 육성하는 공간. 주거·문화·환경·건강·음식·교육·이웃 등 우리 사회가 가진 문제를 7가지 주제로 정의하고, 그에 따른 해결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창업자에게 센터 입주 기회를 주고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벤처기업을 양성(개인창업을 넘어 차세대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창업을 지원하는 것)
- 주요내용
 - 엑셀레이션 프로그램 제공
 - 사무공간 및 공용시설, 장비 사용지원
 - 시제품 개발 및 교육과 컨설팅 지원
 - 홍보, 마케팅, 네트워킹, 글로벌 창업 등 기타 사업화에 필요한 연계 지원
 - 우수기업 투자유치 지원
- 선정방안
 - 온라인 접수 및 서류평가(창업자의 자질·시장성·사업성·기술성 등)를 통해 1.5배수 선발
 - 발표평가(PT)를 통해 고득점 순으로 선발(우대사항 : 여성 기업, 장애인 기업, 사회적 기업)
- 효과
 - 지원사업에 선정된 팀들을 대상으로 소비자들의 수요조사를 통한 아이템을 확산시키고 교육프로그램을 실현해보는 등 창업과 관련 모든 아이디어나 프로그램 등이 소비자 및 서비스 대상자들에게 사전 테스트돼 실제로 사업화 단계에 진입했을 때 보다 완벽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

6) 엑셀러레이팅 방식의 창업성장 프로그램

- 주최 :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 목적 : 사업의 아이디어부터 투자유치까지 성공창업이 가능하도록 창업
 풍토 조성과 부산·울산 등 지역 성공 창업 확산에 기여
- 주요내용
 - 창업캠프 운영 : 예비창업자들은 맞춤형 교육과 멘토링을 통해 자신의
 아이디어를 비즈니스 모델로 탈바꿈하게 됨
 - 창업경진대회 및 창업공모전 : 성공 가능한 창업아이템 발굴
 - 맞춤형 멘토링과 컨설팅 지원 : 각 사업에 맞는 컨설팅 지원
 - 투자유치 상시 지원 : 프로그램을 완료한 사업의 경우 지속적인 투자
 유치 프로그램 제공을 통하여 자금 지원

7) 민간기업의 창업지원활동

<표 Ⅲ-2> 민간기업의 창업지원활동

기업명	사업명	주요내용
삼성그룹	대구창조경제 혁신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크리에이티브 랩 구축을 통한 정보통신기술 (ICT) 관련 청년 창업벤처 지원, 200억원 규모의 벤처창업펀드 조성, 경영 멘토링 등 - 핏인 캠프(Pit-in Camp) : 사업화 과정에서 겪는 시행착오와 실패 요인을 줄이기 위한 목표로 창업 아이디어의 검증, 스타트업 경영 방법론 교육, 창업에 성공한 선배들의 노하우 전수와 1:1 멘토링 등으로 구성
한화생명	씨커스 (SEEKER: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 맞춤형 사회공헌활동으로 시작, 사회적기업 창업에 관심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멘토링, 사업 계획수립 지원 - '14년까지 23팀 60명의 예비 사회적기업가들을 후원

기업명	사업명	주요내용
현대자동차	H-온드림 오디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문제의 혁신적 해결을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 및 소외계층의 사회적기업가 성장에 필요한 재정 및 경영 등 지원 - 최대 1억원 범위 내에서 사업개발비 지원
아산나눔재단(현대)	MARU18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 투자, 네트워킹 등 창업 관련 종합 솔루션과 함께 사무공간을 제공, 세상을 180도 뒤집을 스타트업 배출 목표 - 매월 투자자·엑셀러레이터 등이 한자리에 모이는 타운홀 미팅은 MARU180에서만 진행되는 프로그램 - 구글캠퍼스와 연계로 해외진출을 필요로 하는 기업에 적극지원
POSCO	벤처파트너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팀을 단기 육성캠프로 지원, 향후 시장 진입이 용이하도록 각종 펀드 유치 및 사후관리 지원 - 우수 사업에 10억 이내의 투자를 진행
SK플래닛	T-아카데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T 관련 창업희망자 대상 모바일 IT전문가의 노하우 전수 및 기업 특성에 맞는 모바일 창업 지원 - 2017년까지 SW 방과후 교육을 담당할 전담 강사 3,600명 양성
전국은행연합회	은행권 청년창업재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년간 5천억 출연, 보증이나 투자 등 금융지원, 창업공간제공,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재무·마케팅 교육 등 청년창업 인프라 구축·운영 - 창업센터 “디캠프” 운영을 통해 창업자, 멘토, 투자자 등이 교류할 수 있는 창업생태계 허브 지향 - ‘D.DAY’, ‘D.PARTY’ ‘D.MATCH’ 등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
KDB 대우증권	Jump up 프로젝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2년부터 시작. 청년 사회적기업 창업팀이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 매년 10개 팀을 선별, 마케팅, 기술개발, 디자인 등 분야에 따라 최소 300만원에서 1억 1천만원까지 지원

2. 해외사례

1) 핀란드 Startup Sauna³⁾

○ 지원기관 개요

- 기관명 : Startup Sauna
- 기관성격 : 비영리기관
- 주소 : Betonimiehenkuja 3 D 02150 Espoo
- 연락처 : Natalie Gaudet / nataliet@startupsauna.com
- 홈페이지 : startupsauna.com
- 설립년도 : 2011년

○ 대표 프로그램

- 프로그램명 : Startup Sauna : 창업지원(Startup Sauna), 해외인턴(Startup life), 강연회(Startup Slush)의 세 가지 세부 프로그램으로 구성
- 지원방식 : 금융, 투자유치, 마케팅 지원, 교육

○ 프로그램 목표

- 창업 및 글로벌화 지원 : 핀란드 뿐 아니라 해외창업 및 네트워크 구축도 지원하되 핀란드와 직·간접적 관련성을 갖춰야 함. 글로벌 아이템을 가진 창업희망자 발굴
- 핀란드 내 창업생태계 구축 : 성공한 사업가들이 사회에 환원하고자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본인의 노하우를 후배들에게 전수. 상호교류를 통해 코치진은 창업 희망자들로부터 아이디어와 투자처 확보. 참가자는 코치의 노하우를 전수받아 창업에 성공. 잠재고객, 핀란드 투자펀드, 핀란드 기업과 네트워킹을 통해 핀란드를 창업 허브국가로 육성

3) 코트라, 핀란드 창업·재취업 프로그램 현황 및 시사점. 2013

○ 지원대상, 선정기준

- 모든 국적의 창업 희망자 또는 팀 : 한국에서도 참가 가능
- 선발 기준 : 팀원 개개인의 인성과 팀워크. 창업 아이디어의 글로벌 시장성. Startup Sauna 지원 필요성
- Startup Life는 핀란드 대학 재학생 또는 졸업 후 1년미만의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운영
- Startup Slush는 별도의 입장권 구매 필요

○ Startup Sauna 세부 프로그램 주요내용

- Startup Warm ups : Startup Sauna 운영진이 여러 국가에서 설명회 개최, 참가신청자들과 회의 진행. 지원팀들은 Startup Sauna 코치들에게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창업 아이디어를 소개하고 평가 받음
- Startup Sauna : 연 2회 참가자들을 선정하며, 4~6주간 집중교육 시행. 2회 이상 창업 경험이 있는 50여 명의 유명 기업가들로 구성된 코치진이 강연 및 멘토링 진행. 프로그램의 마지막 단계인 Demo day를 통해 창업아이템을 투자가들에 홍보. IT관련팀을 선별한 후, 실리콘밸리에서 행사를 열어 잠재고객, 경쟁자, 투자자, 미디어, 후배 창업자들까지 만날 수 있는 기회 제공. 프로그램 참여에 소요되는 1,500~2,000 유로의 비용 지원(이동경비, 교육비, 숙소비 등)

○ Startup Life 세부 프로그램 주요내용

- 1차 선발된 지원자에 2~3개 회사와 채용 인터뷰 주선
- 주로 실리콘밸리 또는 핀란드 내 기업으로 파견되며, 인턴 파견을 위한 경비(비자, 항공임 등) 지원

○ Startup Slush 세부 프로그램 주요내용

- 2일에 걸쳐 Startup과 관련된 강연, 세미나, 데모시연, 투자가 미팅 추진

○ 주요성과 및 사례

- Startup Sauna : Ovelin은 실리콘밸리로부터 100만 달러 투자유치
- Startup Life : 현재까지 60여 명의 인턴 파견
- Startup Slush : 2012년 2월 프로그램에 3,500명의 참가자, 550여 개의 기업과 250여 명의 투자자 참여

2) 싱가포르국립대학(NUS)의 Start-UP@Singapore(S@S)프로젝트⁴⁾

○ 개요 : 싱가포르국립대학에서 1999년부터 시작한 창업프로젝트로서 현재 세계적인 창업 프로그램으로 성장

- 대학에서 운영하는 기업가정신센터(NUS Entrepreneurship Center)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기업가정신과 창업을 가르치고 있는 대표적인 성공사례
- 창업 경연대회 성격을 띠며 신선한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학생들에게 엔젤 등의 벤처투자를 알선하고 기술특허 업무를 대행해주는 등 체계적인 활동 수행
- 세 개의 경쟁분야로 분류하여 지원하며 젊은 창업가들과 벤처투자자, 기업관계자간의 교류의 장이 되는 동시에 이와 같은 인큐베이터 프로그램을 통하여 매칭펀드가 이루어짐
- 투자금 지원펀딩은 싱가포르연구재단(National Research Foundation)에서 담당

○ 주요내용

- 비즈 벤처 챌린지(Biz Venture Challenge)는 젊은 창업가들이 그동안 준비해온 사업계획을 제시하고 평가를 받는 프로그램 : 벤처 관계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을 경우 수상과 함께 투자자들의 펀딩 기회 제공
- 소셜벤처 챌린지(Social Venture Challenge)는 사회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벤처창업가들의 경연장 :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벤처

4) 미래창조과학부, 창조경제의 효과적 실현방안 연구. 2014

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우수한 아이디어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

- 프로덕트 쇼케이스(Product Showcase)는 기존 산업현장에서 볼 수 없었던 혁신제품을 발굴하기 위한 프로그램 : 기업관계자들이 다수 참여하여 학생들을 멘토링하고 창업으로 연결. 우수한 아이디어 제안 학생에게 수상과 함께 거액의 창업자금 지원

3) 이스라엘의 요즈마펀드(yozma fund)⁵⁾

○ 목적

- 벤처캐피탈산업 육성 및 벤처투자 활성화를 통한 수출 지향적 High-Tech 산업 성장

○ 조성규모

- 「이스라엘 정부 + 해외LP + 자국LP 및 GP」 공동으로 총 2.63억달러 규모의 펀드 조성
- 정부가 1억달러를 출자하고 2천만달러 이상의 10개 자펀드 조성

○ 운영방식

- 이스라엘 수석과학관실*(OCS)에서 정부출자를 담당하며 펀드관리자로서 자펀드 GP 및 직접투자 대상 기업 선정 등 관여

※ Office of Chief Scientist : 산업통상노동부 산하 연구개발지원정책 총괄 부서

○ 추진경과

- '93년, OCS 주도로 모태펀드(Fund of Funds) 형태의 요즈마펀드 설립
- '96년, OCS가 자펀드 10개 출자(8천만달러) 및 16개 기업 직접투자(2천만달러)
- '98년 민영화 이후, 요즈마펀드Ⅱ, Ⅲ로 발전

5) 한국·이스라엘 산업연구개발재단, 이스라엘 벤처캐피탈 운영현황과 벤처생태계, 2014

<표 III-3> 요즈마펀드 추진경과

구 분	운영기간	조성규모 (백만달러)	특 징
요즈마 I *	'93~'03	263	정부 1억불 출자('97년 1.15억불 회수)
요즈마 II	'98~'08	80	민영화, 모태펀드에서 직접투자자로 전환
요즈마 III	'02~'12	50	

자료: 기획재정부(2013.6), 벤처, 창업활성화 보도자료

○ 펀드 운영 이후 현황

- 국내 벤처캐피탈 산업이 발전하여 성숙함에 따라 이스라엘 정부는 요즈마 펀드를 민영화함으로써 벤처캐피탈과 관련한 개입을 철수하기로 결정
- 요즈마 프로그램 실행 이후 '90년대 후반기에는 이스라엘 벤처캐피탈이 이스라엘 하이테크 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의 역할을 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외국의 벤처캐피탈이 이스라엘의 스타트업 기업들에 대해 직접 투자하게 됨

4) 스타트업 칠레 (Start-Up Chile) 프로그램

○ 목적

- 개요 : 스타트업 칠레는 새로운 사업에 적극 투자하는 엔젤네트워크로 매년 300개 신생기업을 유치하고 있으며, 연간 4만 달러(약 5천만원) 가량의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집중 창업지원 프로그램이자 벤처캐피탈(VC)로 전세계로부터 유치하기 위해 칠레 CORFO(생산진흥청) 주관으로 2010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칠레 정부 프로그램

○ 참가자격

- 연령 : 18세 이상 누구나 참가 가능 (팀 구성 가능)
- 업종 : 컨설팅업, 수출입업, 프랜차이즈업을 제외한 모든 분야
- 창업 기간 제한 : 창업 2년 이내

○ 지원 내용

- 미화 40,000달러 무상 지원
- 1년 칠레 체류 비자 제공
- 사무실, 현지 네트워킹 및 정착 지원

○ 효과

- 단순히 해외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원프로그램 종료 후 칠레에 남아 사업을 구상하는 경우도 있고, 현지 인력의 채용과 지역 소비 촉진 그리고 글로벌 네트워크 형성이라는 다양한 성과로 주목 받고 있음

5) 스타트업 아메리카 (Start-Up America) 프로그램⁶⁾

○ 배경 및 목적 : “Startup America”는 미국 도처에 고성장 기업가 정신을 고취함과 동시에 가속화 하기 위한 백악관의 이니셔티브임

-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2011년 국정연설을 통해 창업 및 중소기업 투자 활성화, 연구개발촉진, 고성장 기업 육성, 기업가 정신고취 등을 골자로 하는 ‘Startup America Initiative’ 계획을 발표
- Startup America Initiative 계획의 핵심 목표는 경제성장, 혁신,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창업을 촉진하고, 기업가 정신을 미국인의 핵심 가치이자 경쟁적 우위의 원천으로 존중하고 고양시키는 것임
- 지속가능한 성장과 질 좋은 일자리를 달성하기 위한 오바마 정부의 국가적 혁신 전략임

○ 주요내용

- 고성장 창업 기업의 자금 접근성 확대 : 중소기업청(SBA,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은 창업 및 초기단계 투자 활성화를 위한 펀드를 조성

6)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미국의 창업지원정책 사례분석과 시사점. 2014

- 국민들이 일자리를 얻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기업가정신 교육 및 멘토십 프로그램 확대 : 중소기업청과 에너지부(DOE, Department of Energy) 및 ARPA-E (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Energy)는 4개의 민간기업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을 통해 전국적으로 100개의 청정에너지 관련 창업기업에 멘토링을 제공할 수 있도록 자금지원을 추진
- 연간 1,480억 달러 규모의 연방 R&D 성과 상용화를 강화하여 혁신적인 창업기업과 신산업이 창출될 수 있도록 지원 : 상무부 경제개발청(Economic Development Administration)은 기술 사업화, 신규벤처 형성, 일자리 창출을 가속화할 수 있는 혁신적이고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장려하기 위해 개념검증센터를 활용
- 대기업과 창업기업간 협력 강화 : 인텔은 2011년 Intel Capital을 통해 2억 달러의 신규투자를 단행했으며, Senior Intel Leadership은 인텔의 포트폴리오 회사들을 지원하기 위해 고안된 프로그램을 SUAP의 회원인 창업기업과 공유

○ 정책의 의의

- 유수 대기업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독려 : SUAP는 대기업의 참여를 일방적인 선행 나누기 방식이 아닌 동반성장의 관점에서 창업기업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분위기를 전환하는데 주력
- 연결성의 기본적 단위로 지역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강조 : 창업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역 기반으로 지원을 제공하며 실제 Startup America 정책 발표 이후에 Startup California, Startup Florida, Startup Texas 등 각 주를 기반으로 창업 지원 네트워크가 구축
- 현장 문제를 파악하고 이의 근본적 해결방안에 초점 : Kauffman 재단은 18개월간의 SAUP 운영에 대한 경과 보고서를 통해 창업가들의 창업 장애요인을 '연결성'의 결핍으로 진단하며 창업가들은 다른 창업가들, 커뮤니티, 지역사회, 잠재적 고객, 투자자, 유능한 인재 및 기타 자원들과의 연결성이 매우 취약하다고 답변하였으며, 이는 일반

적으로 알려진 자금 부족의 문제가 오히려 극히 부분적인 문제라고 해석할 수 있는 근거가 됨

<표 III-4> Startup America Initiative 주요 시책

구분	주요시책
공공 부문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금 접근성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 및 초기단계 투자 펀드 조성(중기청) - 민간 투자 관련 세액 공제 규칙 간소화(재무부) 2. 멘토와 창업가 연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 퇴역자 위한 인큐베이팅 프로그램(보훈부) - 민간 액셀러레이터 지원(중기청 및 에너지부 등) 3. 정부 역할 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가정신 고취 위한 고위급 관료들의 전국 순회 추진 - 신시장 확대를 위한 보건 의료기술 관련 회의체 확대 (건강복지부, 백악관 등) 4. 혁신 가속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혁신적이고 획기적인 아이디어 장려 위한 i6 그린 추진 (경제개발청) - 특허 심사 단축(특허청)
민간 부문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창업생태계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스폰서로부터 재원 조달을 통해 기업가정신 교육, 사업화 촉진, 창업 지원을 위한 비영리재단인 SUAP 조직 2. 차세대 창업가 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소득층 및 소외 청소년 대상 청년 창업가 양성 교육(기업가정신 교육네트워크) 3. 멘토와 창업가 연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 창업가 위한 멘토링 지원(TechStars) - 창업 경진대회를 통한 교육, PR, 네트워킹 및 사무실 공간 등 포함한 무료 서비스 등 제공(Mass Challenge) 4. 대기업과 창업가 연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멘토링, 교육확대, 사업기회 제공(인텔, HP, 페이스북 등) - 자사 제품 무료 또는 할인 판매(아메리칸 에어라인, FedEx, HP 등) 5. 혁신 가속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기반 혁신과 기업가정신 촉진(JumpStart Inc.) - 대학생 창업 보조금 프로그램 확대(전미대학발명가혁신연합회)

자료: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2014), 미국의 창업지원정책 사례분석과 시사점

6) 해외 재창업 지원 사례(미국)⁷⁾

- 공적 보증 활성화 및 사업재생 전문가 지원으로 창업 실패자가 쉽게 재기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재창업기업에 대한 긍정적인 사회적 인식
 - 경쟁의 패배자에게 패자부활전을 통해 경제적 재건을 할 수 있도록 지원
 - 재창업기업에 대한 공적 보증제도
 - 중소기업청(SBA)이 공적 보증 기관 역할을 담당하여 특별보증프로그램, 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투자보증 등의 프로그램 개발
 - 사업재생관리협회(TMA)의 사업재생비즈니스(turnaround business).
 - 기업재생 컨설팅의 형태로 기업의 경영 재건 수행
 - 경영파탄의 원인, 생존가능성 파악 후 기업재생 전략을 수립하는 사업 재생 전문가(CTP) 육성 및 전문가를 통한 조직혁신 단행
 - 경영파탄의 원인, 생존가능성 파악 후 기업재생 전략을 수립하는 사업 재생 전문가(CTP) 육성 및 전문가를 통한 조직혁신 단행

7) 해외 재창업 지원 사례(일본)⁸⁾

- 중소기업재생지원협의회를 통한 사업재생 지원 및 융자 지원으로 재생 성공률 제고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작업을 통한 실패 사전예방
 - 승자와 패자가 고정되지 않는 따뜻한 사회 구현이라는 슬로건에 사업 실패자 등을 대상으로 각자의 개성과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제공하는 내용의 '재도전 종합지원계획'을 추진 (06.12.25)
 - 실패기업인 재도전 자금 융자 : 설비·운전자금 지원과 함께 기존 부채의 조속한 정리도 상담(채무변제계획 심사, 파산·민사재생 등 회생자문)
 - 융자사업의 위험을 감안, 부실에 대한 정부 차원의 이차보전도 추진
 - 재도전지원 보증제도 : 실패 기업인의 재창업 소요자금의 보증*을 지원
- * 보증한도액 1천만 엔, 최대 10년간 보증지원

7) 코트라, 재창업지원제도 개선방안. 2013

8) 코트라, 재창업지원제도 개선방안. 2013

- 중소기업의 사업재생 지원 및 근본적인 재무체질이나 경영 개선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재생지원협의회 설치 및 운영

3. 시사점

- 국내 창업지원 성공사례의 경우 핵심은 형식적인 지원을 하기보다는 앞서 각 사업의 정확한 평가가 우선되어 여러 사업 중 옥석을 가리고 이에 대한 재정지원, 공간지원, 투자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우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는 것임
- 특히 “챌린지 1000프로젝트”의 경우 자체 평가시스템이 갖추어져 선정되면 계속지원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기간별로 평가하여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탈락시키고 있음
- 창업자들의 경우 혼자서 영업, 경영, 기술개발, 관리 등을 혼자 다 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이 정착되기까지 일부 자금만 지원하기보다는 교육, 멘토링, 시설지원, 자금 등 패키지 지원이 창업 성공률을 높이는 데 효과적임
- 형식적인 교육제공, 세무상담 등이 아니라 “아스피린 창업센터”처럼 엑셀레이션 프로그램을 만들어 각 기업의 성장단계에 맞는 지원 프로그램이 효과적임
- 해외성공사례의 경우 창업자에게 다양한 네트워크를 만들어줄 수 있도록 여러 행사를 주최하며 최종적으로 우수 아이디어 또는 사업아이템이 있는 창업자에게는 금전적으로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음. 또한 대기업과 연결시켜 상생의 환경을 만들고 있음
- 재창업 지원 사례의 경우 여러 지원제도보다는 재창업에 대한 긍정적인 사회인식과 주변의 따뜻한 응원 등 환경이 중요
- 이를 위해 창업가의 기업가 정신 교육 강화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창업의 긍정적인 홍보가 필요

IV. 창업기업 재정지원 제도

1. 중앙정부의 창업기업 재정지원 제도

- 2015년 중소기업 관련 예산 중 창업사업화, 1인 창조기업 등 창업환경 조성에 지원되는 예산규모는 전년대비 7.7% 증가한 1조 5,393억원
- 이 중 1조 3,000억원이 창업자금(융자)으로 중소기업진흥공단과 민간 금융기관을 통해 지원됨

<표 IV-1> 2015년 창업지원 사업

사업명	모집구분		예산 (억원)
	지원대상	주관(수행)기관	
창업교육			140
청소년 비즈쿨	초·중·고등학생	초·중·고교	60
창업아카데미	예비창업자 및 1년 미만 창업기업, 대학생	대학·연구기관 등	80
창업사업화			1,613
창업선도대학 육성	예비창업자 및 1년미만 창업기업	창업선도대학	652
창업맞춤형사업화 지원	예비창업자 및 1년미만 창업기업	대학 및 민간기관	423
선도벤처연계기술창업지원	예비창업자 및 1년미만 창업기업	벤처기업협회	75
청년창업사관학교 운영	만 39세 이하 예비창업자 및 3년미만 창업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260
글로벌 청년창업 활성화	예비창업자 및 3년미만 창업기업	창업진흥원	53
민·관공동창업자발굴육성	예비창업자 및 3년미만 창업기업	창업진흥원	50
대한민국 창업리그	예비창업자 및 3년미만 창업기업	대학 및 민간기관	15
(신규)창업인턴제	대학(원) 재학 및 미취업졸업생	창업진흥원	50
(신규)제도전성공패키지	성실실패 예비재창업자	창업진흥원	35

사업명	모집구분		예산 (억원)
	지원대상	주관(수행)기관	
시니어창업			40
시니어 창업스쿨	만 40세 이상 (예비)창업자	대학 및 정부·지자체 산하기관	20
시니어 창업센터	만 40세 이상 (예비)창업자	대학 및 지자체	20
창업보육센터 지원	예비창업자 및 3년미만 창업기업	창업보육센터	227
1인 창조기업			124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1인 창조기업 및 예비 1인 창조기업	지자체, 공공기관	80
1인 창조기업 마케팅 지원	1인 창조기업 및 예비 1인 창조기업	민간기업	44
지식서비스 창업			231
스마트창작터	예비창업자 및 1년미만 창업기업	대학 등 전문기관	99
스마트벤처창업학교	만 39세 이하 예비창업자 및 3년미만 창업기업	대학 등 전문기관	132
참살이 실습터 운영	예비 창·취업자	대학 등 전문기관	18
창업자금 (융자)			13,000
일반창업자금	예비창업자 및 7년미만 창업기업	중진공 및 민간금융기관	12,000
청년전용창업자금	만 39세 이하 예비창업자 및 3년미만 창업기업	중진공	1,000
총 계			15,393

자료: 중소기업청, 통계연보, 2015

- 위 지원 사업 중 2015년 신규사업으로 ‘창업인턴제’와 ‘재도전 성공 패키지’가 운영됨
- 재도전 패키지의 경우 기존 재도전지원사업의 참여 기준을 높여 재창업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에서 사업화 지원 등 일괄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재단장하였으며 이 프로그램이 성공할 경우 사업확대가 우선적으로 실시되어야 함

- 최대 월 80만원씩 지원되는 창업인턴제는 기존에 노동부에서 운영되는 창직인턴제도와 유사함.(현재는 중소기업청 창업 인턴제로 통일함)
- 창업과 관련해서 제도부문도 많이 개선되었는데 첫째, 활발한 창업 투자를 위한 엔젤자금 소득공제와 둘째, 한류관광 등으로 관광산업 성장에 따른 창업지원업종에 숙박업이 포함되었음
- 세부사업별 지원 계획은 다음과 같음
- 창업교육은 청소년 비즈쿨, 창업아카데미 사업을 지원
- 창업사업화 부문은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 창업맞춤형 사업화 지원 사업, 선도벤처연계 기술 창업지원 사업, 청년창업사관학교 사업, 글로벌 청년창업 활성화 사업, 민관 공동창업자 발굴 육성사업, 대한민국 창업리그 사업, 창업인턴제 사업, 재도전 성공패키지 사업 등이 있음
- 시니어 창업부문은 시니어 창업스쿨 사업, 시니어 창업센터 지원사업이 있음
- 창업보육센터 부문은 창업보육센터의 건립비 지원, BI 보육역량 강화 사업이 있음
- 1인 창조기업부문은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지원사업, 1인 창조기업 마케팅 지원사업이 있음
- 지식서비스 창업부문은 스마트창업터 활동 지원사업, 스마트 벤처창업 학교 집중 지원사업이 있음
- 창업자금(융자) 부문은 일반창업자금 지원, 청년 전용 창업자금 지원 사업이 있음

<표 IV-2> 세부사업별 지원 계획

구분	사 업 명	사업내용	지원대상	모집기간
창업 교육	청소년 비즈쿨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 교육 지원	초·중·고등학생	'15년 1~3월
	창업아카데미	우수 예비 기술창업자를 발굴하여 체계적인 교육 실시 및 사업화 연계지원	예비 창업자 및 1년 미만 창업기업, 대학생	'15년 1~3월
창업 사업화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	유망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예비)창업자를 발굴하여 창업 선도대학의 우수 인프라를 활용하여 창업사업화 비용 외에 창업과정 전반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일괄 지원	예비창업자 및 1년 미만 창업기업	'15년 3~4월
	창업맞춤형 사업화 지원	창업수요자에게 지원 분야 및 주관기관의 선택권을 부여하고 시제품 제작비, 마케팅비 등 창업에 필요한 초기자금 지원	예비창업자 및 1년 미만 창업기업	'15년 5~6월
	선도벤처연계 기술창업지원	선도벤처기업의 노하우 전수 및 기술창업자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위해 예비창업자에게 창업 준비공간, 시제품 제작, 전담 멘토링, 사업기획 등의 비용 지원	예비창업자 및 1년 미만 창업기업	(선도벤처기업) '15년 1월 (예비창업자) '15년 3월
	청년창업 사관학교	청년창업자를 선발하여 창업계획 수립부터 사업화까지 창업 소과정을 일괄 지원하여 젊고 혁신적인 청년창업CEO 양성	예비창업자 및 3년 미만 창업기업 *단, 개별사업공고일 기준 만 39세 이하인 자	'15년 1월
	글로벌 청년창업 활성화	(해외 진출·창업 지원) 해외진출 의지가 높은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국내외 창업교육 및 코칭, 현지 보육을 지원하여 성공적인 글로벌 청년창업 육성 (외국인 기술창업 지원) 우수 기술을 보유한 외국인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창업사업화자금, 멘토링, 네트워킹, 사무실 공간 및 창업비자 획득 지원	예비창업자 및 3년 미만 창업기업	'15년 2월
	민·관 공동 창업자 발굴 육성	대기업 등 민간기업·단체가 직접 우수 창업아이템을 발굴하여 창업멘토링, 시제품제작 등 지원을 통해 유망창업자로 양성하고, 투자까지 연계하여 성공창업을 지원	예비창업자 및 3년 미만 창업기업	(운영사) '15년 1월 (창업팀) 운영사별 수시
	대한민국 창업리그	유망 창업아이템을 발굴하여 성공적 창업사업화를 위한 상급 지급 및 창업 멘토링, 시제품 제작 등 지원	예비창업자 및 3년 미만 창업기업	'15년 2~3월
	창업인턴제	창업 준비과정에서 벤처·창업기업 현장근무(인턴) 기회를 제공하고 창업시 사업화자금을 지원	대학(원) 재학 및 미취업졸업생	'15년 3월
	제도전 성공패키지	성실실패기업인 대상 힐링캠프- 재창업 역량강화교육- 재창업사업화 지원 등의 프로그램 일괄지원	성실실패 예비재창업자	'15년 3월
	시니어 창업	창업을 희망하는 시니어(예비)창업자의 성공적 창업준비를 위하여 실무 중심의 창업교육을 지원 지자체 및 대학 등 지방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지역 소재 시니어의 비즈니스 창출 지원	만 40세 이상 (예비)창업자 만 40세 이상 (예비)창업자	(운영기관) '15년 2월 (교육생) 연중 수시 (운영기관) '15년 2월 (입주기업) 연중 수시
창업 보육 센터	건립비 지원	노후시설개선, 일반건물의 BI전환 등 창업보육센터의 리모델링 비용 지원	창업보육센터 (중기청 지정)	'15년 2~3월
	BI 보육역량 강화	창업보육센터의 입주기업 보육역량 강화를 위한 멘토링, 마케팅, 금융투자 등 보육프로그램 운영 지원	창업보육센터 (중기청 지정)	'15년 2~3월
1인 창조 기업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1인 창조기업의 사무공간, 자문·교육 및 특화서비스 지원	1인 창조기업 및 예비 1인 창조기업	(운영기관) '15년 2월 (입주기업) 연중 수시
	1인 창조기업 마케팅 지원	창의적 아이템을 보유한 1인 창조기업에 디자인 개발, 홈페이지, 홍보영상 제작 등 마케팅을 지원	1인 창조기업 및 예비 1인 창조기업	(수행기관) '15년 1월 (주관기업) '15년 2월
지식 서비스 창업	스마트창작터	유망 지식서비스 분야 (예비)창업자에 대한 전문교육, 전문가 멘토링 등 창업활동 지원	예비창업자 및 1년 미만 창업기업	(운영기관) '15년 2월 (교육생) '15년 3월
	스마트 벤처창업학교	앱, 콘텐츠, SW융합 등 유망 지식서비스 분야의 사업계획에서 개발, 사업화까지 실천 창업을 집중 지원	예비창업자(팀) 및 3년 미만 창업기업 *단, 개별사업공고일 기준 만 39세 이하인 자	'15년 2~3월
참살이	참살이실습터 운영	참살이 서비스 실무 교육 및 창업 지원	예비 창·취업자	(운영기관) '15년 2월 (교육생) '15년 3월
창업 자금 (융자)	일반창업자금	우수 기술과 사업성을 보유하고 있으나 자금이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자금(융자)을 지원 * 융자범위 : 시설자금(생산설비 등에 소요되는 자금) 및 운전자금(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예비창업자 및 7년 미만 창업기업	휴수달 첫 정상영업일부터 소진시까지
	청년전용 창업자금	우수 아이디어를 보유한 청년층의 창업초기 자금 융자 및 교육·컨설팅	예비창업자 및 3년 미만 창업기업 *단, 신청일 기준 만 39세 이하인 자	휴수달 첫 정상영업일부터 소진시까지

2. 제주의 창업기업 재정지원 제도⁹⁾

- 2015년 제주도 중소기업 육성정책 중 창업관련 지원 사업은 총 8개 사업이며 도 사업비 자체만으로 8억7천8백만원이 예산으로 책정되어 있음

1) 소상공인 창업대전 참가지원

- 사업목적
 - 전문창업 아카데미 교육 수료자를 대상으로 창업박람회 참가비를 지원하여, 다양한 창업 아이템을 발굴하고 예비창업자들에게 성공창업을 유도하기 위함
- 사업내용
 - 사업시행 주체 : 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 지원대상 : 전문창업 아카데미 교육 이수자
 - 지원내용 : 창업박람회 참가비 지원

2) 소상공인 전문창업 아카데미 운영

- 사업목적
 - 창업예정자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통해 창업성공률을 높이고, 성공창업을 위한 경영기법을 연수하기 위함
- 사업내용
 - 사업시행 주체 : 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 지원대상 : 전문창업 아카데미 교육 이수자
 - 지원내용 : 창업기본교육, 전문창업교육
(음식업창업교육, 경영개선교육 등)

9) 2015년 중소기업 육성정책 중 창업분야, 제주특별자치도 기업지원과

3) 중소기업 창업프로그램 운영

○ 사업목적

- 자립의지가 뚜렷하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갖춘 창업예정자의 성공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예산임

○ 사업내용

- 사업시행 주체 : 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 지원대상 : 전문창업 아카데미 교육 이수자 및 창업대전 참가자
- 지원내용 : 창업예정자(15명) 1인당 10백만원 범위내 창업 소요비용 지원
- 대상자 선정 방법 :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원자의 사업계획서 검토 및 발표 후 선정

4) 제주형 프랜차이즈 창업비용 지원

○ 사업목적

- 제주의 청정 농수축산물을 기반으로 프랜차이즈화하여 제주지역의 협소한 내수시장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판로 확충으로 도민 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주형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창업을 하기 위함

○ 사업내용

- 사업시행 주체 : 제주특별자치도
- 지원대상 : 중소기업, 자영업자
- 지원내용 :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5개 × 40,000천원 = 200,000천원(가맹본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설비, 컨설팅, 디자인 등 지원)

5) 창업보육센터(BI) 입주기업 역량강화 지원

○ 사업목적

- 창업 초기 중소기업의 업무공간 제공 및 컨설팅 등 역량강화 지원

○ 사업내용

- 사업시행 주체 : 도내 대학(창업보육센터)
- 지원대상 : 4개 대학 창업보육센터(중소기업청 지정)
- 지원내용 : 창업 초기 중소기업의 업무공간 제공 및 컨설팅(경영, 기술 등) 지원. 창업동아리 및 예비기술창업자 등을 발굴, 사업화 컨설팅 지원

6) 창업아이템 기술개발 지원

○ 사업목적

- 청년, 대학생의 창의적인 창업아이템을 발굴, 기술창업 지원 및 예비 기술창업자의 창업을 촉진함으로써 실질 일자리 창출 기여

○ 사업내용

- 사업시행 주체 : 제주관광대학교(창업보육센터)
- 지원대상 : 우수창업아이템 보유 예비창업자 또는 청년·대학생 창업 동아리
- 지원내용 : 창업아이템의 발굴 및 사업화 타당성 검토 등 기술 로드맵 지원

7) 창업 선도대학 육성 지원

○ 사업목적

- 창업교육 및 창업동아리 활동 지원 등 지역의 창업거점 기관으로 육성 및 창업역량 강화 및 창업분위기 조성을 통한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

○ 사업내용

- 사업시행 주체 : 제주대학교 창업지원단
- 지원대상 : 제주대학교('12.2월 중기청 지정)
- 지원내용 : 지역내 청년, 대학생 창업동아리 및 예비기술창업자 발굴·

육성, 사업화 지원 및 창업강좌, 창업아카데미 프로그램
운영 등 체계적인 창업교육

8) 향토자원 활용형 창업지원

○ 사업목적

- 향토자원을 활용한 창업활성화 및 산업화를 위해 예비창업자, 창업초기 기업에게 기술개발, 마케팅 등 창업사업화 컨설팅을 지원하여 도내 중소제조기업 육성 및 성장을 촉진하기 위함

○ 사업내용

- 사업시행 주체 : 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 지원대상 : 향토자원을 활용한 예비창업자 및 창업 초기기업
- 지원내용 : 사업타당성 검토, 창업절차 대행, 창업공장 설립 대행, 사업화컨설팅 등

3. 창업지원사업의 문제점

- 정부에서 창업활성화를 위해 내놓은 창업정책 지원자금이 1조5,393억원이지만 여기서 1조 3,000억원은 창업지원금이라기보다는 대출금으로 개인의 신용상태, 담보능력 등에 따라 개인별로 대출금이 상이함
- 대출을 제외한 실제 기술창업 지원, 창업인프라 확대 등에 지원되는 금액은 2,393억원으로 정부가 제시한 1조5천억원 중 15.5%에 불과한 실정임
- 대출 조건도 2.7%의 낮은 금리를 제시하고 있지만 요즘 같이 낮은 금리 시대에 그리 큰 매력은 없으며 민간 금융기관을 통해서 할 경우 신용보증재단 보증서 발급을 통한 대출로 이루어지며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 할 경우 보증서 없어 직접대출로 이어지지만 별 다른 조건없이 대출이 실시되어 부도, 파산, 90일 이상 이자 연체 등의 부실채권이 증가하고 있음

- 정부의 창업재정지원 사업은 2014년에 2조 1,661억원 수준이며 이 중 중소기업청이 2조 500억원 수준으로 전체의 약 94.8%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 정부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의 예산으로 재정지원을 하고 있음. 이렇게 여러 부처에서 운영하다 보니 창업지원내용이 비슷한 중복사업이 많이 존재. 지난해 국무조정실을 통해 유사/중복사업을 조정했지만 아직도 많은 사업이 존재함
- 교육부의 산학협력선도대학(LINC) 사업과 중소기업청의 창업선도대학은 대표적 대학생 창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사업목적과 내용이 비슷하여 작년 유사/중복사업의 조정대상이었지만 대학이 하나의 사업만 선택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에 그쳐 정부의 해당사업 담당자 인력들은 그대로 현행 업무를 하며 각자 사업 운영 중
 - 이 외에도 미래부의 '청년창업자 글로벌 창업'과 중소기업청의 '글로벌 청년창업 활성화'도 사업이 유사함

<표 IV-3> 부처별 창업지원 현황

(단위 : 억원, %)

부처	'13년		'14년(신규사업 포함)	
	지원예산	비중	지원예산	비중
중소기업청	22,191.8	98.62	20,534.4	94.80
미래창조과학부	69.2	0.31	791.2	3.65
고용노동부	142.3	0.63	163.3	0.75
교육부	15.0	0.07	15.0	0.07
문화체육관광부	63.0	0.28	137.6	0.64
산업통상자원부	20.0	0.09	20.0	0.09
합계	22,501.3	100.00	21,664.5	100.00

자료: 중소기업청, 통계연보, 2014

- '15년 제주도 중소기업육성 전체예산 966억 중 창업지원사업 예산이 8억7천만원으로 비중은 0.91%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음. 많은 예산을 투입하지 않은 이유는 정부의 창업지원 사업이 제주도에도 해당되어 중복사업이 될 수 있기 때문. 그러나 현재 제주는 일자리 부족으로 '09년 3.9%였던 청년 실업률이 '14년에는 6.1%로 증가하였으며 양질의 일자리가 턱없이 부족한 상태임
- 재정지원의 창업지원 사업을 통해 도내 일자리 창출과 제주도의 경제 활성화에 기반이 되는 기초사업을 할 필요가 있음

V. 창업기업 재정지원 방안

- 이번 연구의 목적은 효과적인 창업기업 재정지원을 통해 갈수록 심해지는 청년 실업률에 대응하여 고용창출에 기여하며 제주에 건전한 창업생태계가 만들어지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임
- 다양한 창업기업 지원 방안 중 기존 지원방식에 반해 효과적인 재정지원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기재하며 이와 더불어 비 재정적인 지원방안도 추가로 기술함

1. 제주지역 창업기업 재정지원 방안

<표 V-1> OECD 주요국별 창업기업 생존율

국가	3년 후 생존율
룩셈부르크	66.8%
호주	62.8%
이스라엘	55.4%
미국	57.6%
이탈리아	54.8%
한국	41.0%

자료: OECD (2013)

- 창업기업 100개사가 창업하면 3년 후에는 41개 기업만이 살아남으며 나머지 59개 기업은 폐업한다는 것으로 이는 OECD 17개 주요 회원국 중 최하위 수치
- 창업기업들이 기술개발에도 불구하고 자금난으로 죽음의 계곡(Death Valley)을 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이에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창업기업에 기존의 재정지원방안을 수정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지원금액, 지원방식, 지원대상으로 나누어 제시하고자 함

1) 재정지원 금액

- 기존 창업기업에 지원되는 사업 중 ‘중소기업 창업지원사업’은 업체당 최대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되며, ‘향토자원 활용형 창업지원’ 사업은 업체당 최대 4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됨
- 창업기업에게 400만원 지원금이나 또는 1,000만원 지원금은 성장을 촉진하고 창업의 성공률을 높이기에는 적은 금액으로 기업들이 필요 자금 압박에서 벗어나지 못함
 - 성공사례로 제시한 ‘챌린지 1000프로젝트’의 경우 공간지원 외 활동지원금으로 7,0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음
- 이에 창업사업자금 지원의 기준을 달리하여 창업기업 다수에게 자금을 지원하기보다는 몇몇 사업성이 우수한 기업에게 보다 많은 금액을 지원(소수기업에게 집중 재정 지원)하는 것이 더 효과적임

2) 재정지원 방식

- 기존 창업지원사업의 재정지원은 저금리로 융자해주는 융자지원금이 있으며, 기업과 일정 비율로 매칭해서 지원하는 매칭지원자금이 있으며, 사업아이템에 따라 일방 지원하는 사업지원자금이 존재함
- 그러나 2015년 올해의 경우 저리 융자지원금이 전체 창업지원금 중 84.5%를 차지하며, 지원방식은 보통 신용보증재단이나 보증기금의 보증서를 통한 대출지원이며, 매칭지원자금의 경우 창업자가 20%~30% 정도 부담을 하면 나머지 70%~80%의 매칭비용을 지원하고 있음

- 이에 펀드 조성을 통해 성장 가능성은 있으나 자금 및 담보 능력 부족 등으로 인해 융자금 대출에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있는 창업 초기 단계의 기업에 직접 투자하여 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데 기여함

3) 재정지원 대상

- 창업재정지원 대상은 창업을 하려는 또는 창업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다수가 아닌 성공 가능성이 있는 또는 현재 성과(실적 or 고용)가 있는 기업을 먼저 우대하는 것이 필요함
- 신규 창업에 비해 높은 성공률을 가진 것이 재창업자임. 재창업의 경우 기존에 축적된 경영, 기술, 유통망 등에 대한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어 신규 창업에 비해 성공 가능성이 큼
- 현재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하는 ‘재도전 성공 패키지’가 있지만 자체 도내 지원자를 대상으로 선별하여 지원함으로써 창업의 성공률을 높이고 재창업을 통한 창업생태계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함
 - 경기도의 경우 ‘희망특례 지원 보증금’을 운영하는데 총 100억원 규모로 기업당 1억원 한도로 자금을 융자하며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전액 보증을 하며 농협이 자금을 융자하는 데 이 중 2%의 이자를 경기도가 지원함

2. 제주지역 창업기업 재정지원 과제

1) 재창업지원

- 목적
 - 재창업의 성공은 투자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신규창업 및 재창업을 촉진하여 창업생태계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함

○ 재정확보 방안

- 일반회계 예산 중 창업기업 지원자금 확보

○ 내용

- 기존 중소기업 창업 프로그램 중 최종 프로그램 지원 선정자 일부를 재창업지원자로 선정
- 재창업자 지원의 가시적인 성과 후 점차 사업을 확대

○ 기대효과

- 실패 가능성이 높은 창업의 속성장 재도전의 원활화는 창업실패의 부담을 감소시켜 기업가 정신을 고취시킴
- 신규창업에 비해 성공률이 높아 전반적인 창업의 성공률 제고

2) 직접투자

○ 목적

- 도내 기술력과 성장가능성이 있는 창업기업이 저리용자나 일반적인 창업지원금으로는 한계가 있어 직접투자를 통하여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 재정확보 방안

- 일반회계 예산 중 창업기업 지원자금 확보
- 출자 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펀드 조성

※ 참고사항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5항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지방중소기업육성관련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지방 중소기업·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합에 출자할 수 있음

「지방재정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

-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따라 출자(出資)할 수 있도록 정하여진 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 외의 단체에는 출자를 할 수 없음
-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출자를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

○ 내용

- 도내 창업 초기기업 및 벤처기업으로 일정요건을 갖춘 엔젤투자자가 투자한 기업에 엔젤투자자와 매칭(1:1.5)의 방법으로 신주 투자
- 투자된 자금의 회수는 엔젤투자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주식 등을 공동 매각. 단, 코넥스, 코스닥 시장 또는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하는 경우에는 엔젤투자자와 관계없이 별도 매각 가능

○ 기대효과

- 직접 투자를 통해 도내 창업기업 성공의 베스트 사례로 선정하여 스타 기업으로 육성

3) 기술사업화 지원

○ 목적

- 우수기술을 개발하여 창업지원을 통한 사업화 성공률 제고

○ 재정확보 방안

- 일반회계 예산 중 창업기업 지원자금 확보
- 기본 지원금은 창업자 매칭형식으로 운영

○ 내용

- 기존 기술사업화 사업은 1년간의 기간을 기준으로 지원하지만 도내 기술사업화 사업은 기술성이 있는 창업기업이 죽음의 계곡을 건너가는 시점(3년)까지 지속적인 지원을 함

- 반기별로 사업성을 평가하여 지속적인 지원 여부를 결정하며 시간이 갈수록 창업기업의 매칭금액이 확대되게 설계함

○ 기대효과

- 기술개발 성과의 기술이전 동기 부여 및 기술사업화 촉진
- 기술사업화 위험요소 최소화 및 사업화 기간 단축
- 우수기술 사업화 성공사례 창출 및 도민에게 혜택 제공

4) 사전컨설팅

○ 목적

- 생계형 창업의 사업 전 전문가와의 사업성 분석을 통한 사업 성공률 제고

○ 재정확보 방안

- 일반회계 예산 중 창업기업 지원자금 확보

○ 내용

- 생계형 창업의 경우 제주신용보증재단을 통한 대출이 대부분으로 제주 신용보증재단 경영컨설팅과 연계한 사업진행
- 컨설턴트를 위한 표준화된 컨설팅 매뉴얼 제작(예비 창업자 분석, 사업성 분석방법 등)
- 상·하반기 정기적인 컨설턴트 교육을 통한 컨설팅의 수준 제고

○ 기대효과

- 향후 컨설팅 자료를 토대로 다양한 생계형 창업의 데이터 활용 가능 (창업 추세, 예비창업가 역량, 성공사례, 실패사례 등)

5) 해외진출/해외투자유치

- 목적
 - 도내 창업기업의 해외진출과 투자유치 적극적 지원
- 재정확보 방안
 - 일반회계 예산 중 창업기업 지원자금 확보
- 내용
 - 해외진출의 경우 “지역산업 해외마케팅”, “누비라차이나” 등 기존 사업과 연계하여 사업지원
 - 해외투자(투자유치)의 경우 비즈니스모델이 해외진출이 가능한 사업의 선별을 통하여 현재 투자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중국, 미국 등을 목표로 글로벌 엑셀러레이터와 연계하여 사업진행
- 기대효과
 - 단기간 내 글로벌 기업육성과 해외에 국내 창업기업의 높은 기술력 홍보

6) 멘토시스템

- 목적
 - 성공한 선배 창업인이 유망한 후배 창업기업에게 성공경험과 노하우를 전수
- 재정확보 방안
 - 일반회계 예산 중 창업기업 지원자금 확보
- 내용
 - 기존 형식적인 성공 대기업 및 중견기업과 창업기업과 매칭 시스템이

아닌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멘토단을 구성하여 정기적인 만남의 장을 마련

- 멘토단 구성 : 상장 및 코스닥 출신 전·현직 임직원으로 해당분야 전문가

- 기대효과

- 창업기업의 경우 멘토시스템을 통한 다양한 네트워크 연결

3. 재정 외 지원방안

- 창업기업에게 적절한 재정적 지원이 가장 중요하지만 그와 더불어 비 재정적 지원방안인 교육, 컨설팅, 네트워킹 등도 창업기업이 역량을 다지고 성장하는데 큰 도움이 됨

1) 창업 전 컨설팅 강화(생계형 창업)

- 아직까지 국내 창업상황은 부가가치가 낮고 신규 진입이 용이한 생계형 창업의 비중이 63%로 세계 최고 수준임. 특히 숙박·도소매업과 같은 대표적인 생계형 업종은 창업 준비 소홀과 과당경쟁으로 생존율이 매우 낮음
- 이에 창업 전 자금을 요청한 예비 창업자에게 의무적인 컨설팅을 제공하여 단순판매 중심의 도·소매업 과당경쟁을 방지하고, 지역산업과 연계되는 업종의 창업 등으로 유도하는 기능을 할 수 있게 됨. 동시에 창업계획과 자금계획 수립을 통해 향후 리스크를 대비하며 제주도의 읍면단위별 상권분석(소상공인 진흥공단 상권분석 활용)을 통해 부가가치가 낮은 동종업계의 경쟁 심화를 방지함
- 컨설팅 수행을 위해 컨설턴트의 표준화된 매뉴얼과 교육이 앞서 선행되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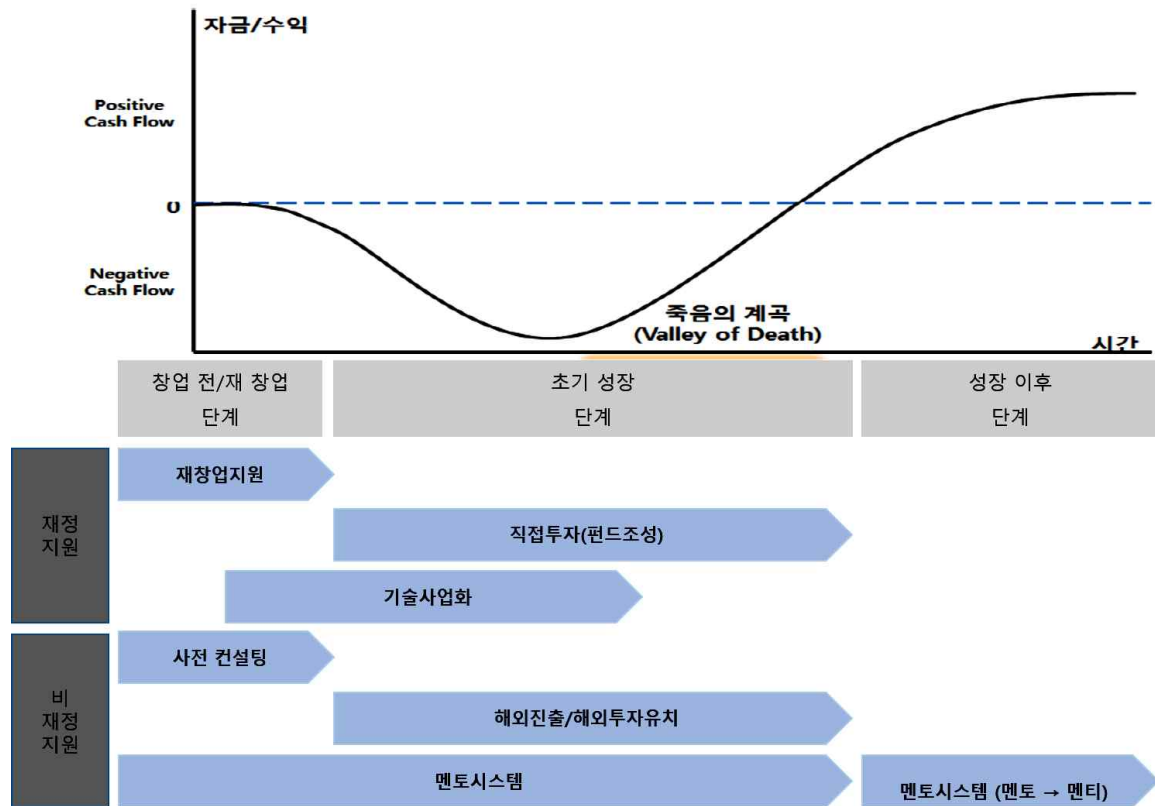
2) 글로벌 투자 및 진출지원 확대

- 창업 이후 글로벌 진출을 목표로 하는 기업에 대해 판로개척, 투자지원 등의 적극 지원을 통해 타 기관 또는 지자체와 차별화된 투자정책 지원 운영
- 글로벌 투자 지원
 - 최근 중국의 알리바바, 샤오미 등의 IT기업 성장으로 투자열풍이 일고 있으며, 2015년 초에 KOTRA 지원하에 국내 창업기업이 중국에서 중국 투자자들 참석 하에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였음(그 외 산업통상자원부의 차이나위크 등의 투자행사 개최). 이제는 투자자 시각을 확대하여 사업성이 뛰어난 창업기업이라면 글로벌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음
- 글로벌 판로 개척
 - 중기청의 경우 중국진출을 원하는 중소기업의 지원을 위해 “차이나 하이웨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듯이 해외 진출을 원하는 창업기업을 단순 박람회 참가지원 등의 단순지원에서 벗어나 해외 컨설팅업체와 연결시켜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음

3) 멘토링 지원 시스템 강화

- 기존에도 많은 창업지원사업의 경우 멘토링 또는 컨설팅 지원이라는 명목 아래 시행되고 있지만 형식적인 조언에 그치는 경우가 많음
- 미국 실리콘밸리의 경우, 성공한 선배 벤처기업인이 유망한 후배 창업기업을 발굴하여 성공경험과 노하우를 전수하듯이 성공한 선도 벤처가 또는 사업의 해당분야 전문가가 혁신성과 시장성 등이 우수한 청년 벤처기업을 직접 양성하는 과정 지원으로 운영
- 향후에는 멘토링 시스템을 통해 성공한 기업이 멘토가 돼서 다시 창업기업을 이끄는 순환구조로 가야 될 것임

4. 정책 로드맵



[그림 V-1] 성장단계에 따른 창업지원 로드맵

- 이번 성장단계에 따른 창업지원 로드맵은 창업기업의 성장 단계별 지원사업으로 기존 창업지원사업에 추가로 진행되어야 할 사업으로 기술하였음
- 창업전/재창업단계에서는 재창업 지원 및 사전 컨설팅사업을, 초기성장 단계에서는 직접투자(펀드 조성), 해외진출 및 투자유치 사업을, 성장 이후 단계에서는 멘토시스템 운영사업을 지원

○ 재정지원 방안 과제는 다음과 같음

○ 세부과제로는 재창업 지원, 펀드 조성을 통한 직접 투자, 기술사업화 지원, 사전 컨설팅, 해외진출/해외투자, 멘토시스템 지원사업을 제시하고 있음

과 제	내 용
재창업지원	신규창업 및 재창업을 촉진하여 창업생태계의 선순환 구조 구축
펀드조성을 통한 직접 투자	펀드조성을 통한 직접투자를 통하여 중견기업으로 성장 지원
기술사업화 지원	우수기술을 개발하여 창업지원을 통한 사업화 성공률 제고
사전컨설팅	생계형 창업의 사업 전 전문가와의 사업성분석을 통한 사업 성공률 제고
해외진출/해외투자	도내 창업기업의 해외진출과 투자유치 적극적 지원
멘토시스템	성공한 창업기업에게 성공경험과 노하우를 전수

○ 추진 단계는 다음과 같음

○ 추진 단계별로 보면 단기과제로는 재창업 지원, 사전 컨설팅, 멘토시스템 지원이 있으며, 중장기과제로는 펀드 조성을 통한 직접 투자, 해외진출/해외투자 사업이 있음.

과 제	단 계
재창업지원	단기
펀드 조성을 통한 직접 투자	중기
기술사업화 지원	중기
사전컨설팅	단기
해외진출/해외투자	중기
멘토시스템	단기, 중기

○ 재정부담 주체별 재정확보 추진 단계는 다음과 같음

○ 재정확보 추진은 국가, 제주도, 기업별로 단기, 중장기 확보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재정부담 주체	주요 방안	단계
국 가	국가 정책 중 창업자금 확보 방안 등	단기, 중장기
제주도	일반회계 예산 중 창업기업 지원자금 확보 등	단기
기 업	자체 부담 등	단기, 중장기

참고문헌

- 호남지방통계청, 제주지역 고용동향, 2015
- 중소기업청, 2015년 1월 신설법인 동향, 2015. 2
- 기획재정부, 벤처, 창업 활성화 동향과 성공사례, 2015. 2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미국의 창업지원정책 사례분석과 시사점, 2014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보고서, 각년도
- 미래창조과학부, 창조경제의 효과적 실현방안 연구, 2014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주요국 창업지원 정책동향, 2011
- 코트라, 핀란드 창업 재취업 프로그램 현황 및 시사점, 2013
- 한국산업연구원, 창업기업의 고용창출 성과 및 정책과제, 2014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창조경제시대 한국생태계 현황과 과제, 2013
- 관계부처 합동, 창조경제 실현 계획안, 2013.6
-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 2015
- OECD, Society At a Glance 2014, 2015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15
- 한국·이스라엘 산업연구개발재단, 이스라엘 벤처캐피탈 운영 현황과 벤처 생태계, 2014
- 제주특별자치도, 2015년 중소기업 육성시책, 2015
- 기획재정부, 벤처·창업 활성화 보도자료, 2013. 6.
- 코트라, 창업지원제도 개선 방안, 2013
- 중소기업청, 통계연보, 2015

Abstract

A Study of Financial Support Plan for Startups in Jeju

Cheol-soo Koh, Jong-Seo Kim

Keywords : Startup, Financial Support, Economic Promotion

Since th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was launched, it has become necessary to the fundamental support system for system integration, expanding support targets and subsidies, and economic risk management. In consequence, the need for studies on this subject has been noted in recent years.

For this, it is required to reflect in the characteristics of industries in Jeju and change the support system from a quantitative support system to a qualitative support system. Also, seeking policy alternatives for effective financial support is considered a meaningful study to decrease the number of failing startups in Jeju.

This study revised the existing financial support plan for startups, and it classified the revised plan into support amount, support method and support target. First, the support criteria regarding financial support amount have been changed: the revised plan suggests to provide more support to startups that excel in business performance rather than a multitude of them. Second, in respect to the financial support method, the plan suggests direct investment in startups in the

early stages, in which they have difficulties getting a loan due to the lack of capital and collateral, allowing them to solve capital-crunch issues. Third, as for financial support targets, the plan suggests to expand the supports to include re-startups, which have been excluded from financial support so far, and existing startups.

This study suggests a way to revitalize the regional economy by creating a startup ecosystem, which cycles in startup → growth → payback → re-investment/rechallenge, in Jeju to meet the goal of the government's policy on the promotion of business creation. Also, this will contribute to the provincial policy of Jeju and the promotion of Jeju economy.

연구진

연구책임	고철수	제주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공동연구	김종서	제이어스 코퍼레이션 팀장

기본연구 2015-06

제주지역 창업기업 재정지원 방안 연구

발행인 || 강기춘

발행일 || 2015년 6월

발행처 || 제주발전연구원

690-162 제주시 아연로 253

전화: (064) 726-0500 팩스: (064) 751-2168

홈페이지: www.jdi.re.kr

인쇄처 || 일신옵셋인쇄사

ISBN : 978-89-6010-406-8 93320

- ☐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정책적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보고서는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전재나 복제는 금합니다.